

# Sulwhasoo

VOL.67 MAY/JUNE 2015

Sulwhasoo

VOL.67

Sulwhasoo

MAY/JUNE 2015





Ties the Knot/Glass/ 양유완  
사진 이종근 에디터 권지애

뜨거운 열정熱情의 작업과정을 거치고 나면 차가운 유리로의 냉정冷靜이 넘쳐나는 작업, 글라스 블로잉이다. 1,400℃의 고열에서 녹인 유리를 마치 풍선을 불듯 입으로 불어 탄생하는 작품은 그때마다 크기나 모양이 다른 '단 하나'의 작품으로 태어난다. 작가 양유완은 서양의 방법론적 테크닉에서 탄생한 유리공예에, 기대치 않았던 모양과 작가의 추억 혹은 감성에서 끄집어낸 색감을 담아 새로움을 전하고 있다. 이 새로움 속에는 한국인으로서의 본색本色을 잃지 않으며 옛 것과의 소통을 시도하는 작가의 노력이 현명하게 새겨 있다. 때론 유연한 도자의 선을 만들어내며 때론 수묵화 속에 그려진 능선의 선과 색을 담아낸다.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 속에서 작가는 결코 쉽지 않은 않았던 한국의 역사를 작품 하나하나에 새기고 있다. 이렇듯 우리의 아름다움이 작품의 부분 혹은 전체를 아우르며 서로 다른 이야기가 담기지만, 실생활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자 기교와 멋보다 간결함과 실용성을 지닌 작품을 만드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렇게 만들어진 작품들은 어느 누구에게든 자연스럽게 다가가 격의 없이 어우러지리라 작가는 믿고 있다.

---

Glass blowing is an ongoing process of steaming passion to cold glass artwork. When glass is melted at a high temperature of 1,400°C, it is blown like a balloon and always produces a 'one-of-a-kind' artwork. Artist Yoowan Yang delivers novelty by applying unexpected shapes and a sense of color from his memories or sentiments to the western methodology of glass craft. Such novelty wisely reflects his efforts to keep the identity of the art as Korean and to communicate with the tradition. He sometimes creates smooth porcelain lines and captures the lines and colors of mountain ridges from ink paintings. Through the process of creation, he engraves in each of his works the history of Korea, which has not been easy. The beauties of Korea are contained in all or parts of his work, to convey different stories, but his focus is always on creating simple and practical artworks with minimal technique and ornamentation so that they would look natural and in harmony with everyday life. He believes that his artworks feel natural and friendly to anyone.

# Sulwhasoo

MAY/JUNE 2015

## 진정한 아름다움의 가치를 실현하는 글로벌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 설화수

설화수는 순행하는 자연의 이치로부터 지혜를 얻고, 자연에서 나고 자란 진귀한 원료로 참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내·외면의 균형 잡힌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설화수. 수천 년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전설적인 한방 성분을 현대 피부과학으로 재창조하여 피부 안팎을 총체적으로 케어하는 궁극의 피부 솔루션을 제공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주는 홀리스틱 뷰티를 선사한다. 삼천가지 원료에서 찾아낸 설화수 고유의 원료인 '자음단'과 설화수만의 독보적인 효능을 기능케 한 한국의 우수 원료 '인삼' 그리고 첨단 피부과학을 통해, 설화수는 한국을 넘어 세계에 홀리스틱 뷰티의 가치를 전파하고 있다. 2015년 현재, 설화수는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 싱가포르, 홍콩,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대만, 베트남, 미국까지 전 세계 10여 개국에 진출, 아시아 뷰티 크리에이터로 자리 잡고 있다.

---

Sulwhasoo gains wisdom from the laws of nature and creates true beauty with precious ingredients grown in nature. It presents the balanced beauty of inside and out. The legendary Asian medicinal herbs that distill thousands of years of Asian wisdom are recreated with modern skincare science to provide the ultimate skincare solution, and create holistic beaut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s original 'JAUM Balancing Complex', found from about 3,000 ingredients, coupled with Korea's outstanding ginseng that enables Sulwhasoo's unmatched efficacies and advanced skin science, spreads the value of holistic beauty throughout the world. As of 2015, Sulwhasoo conducts business in 10 countries, including Korea, China, Singapore, Hong Kong, Thailand, Indonesia, Malaysia, Taiwan, Vietnam, and the U.S., as the Asian beauty creator.



# Sulwhasoo

VOL.67 MAY/JUNE 2015

고은여성문화지古恩女性文化誌 Sulwhasoo는  
설화수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주)아모레퍼시픽에서  
연 6회 발행하는 고품격 VIP 매거진입니다.

발행인·서경배 편집인·류재천  
발행처·(주)아모레퍼시픽·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100 시그니처 빌딩  
제작·설화수 MC 팀 문의·정유진 02)879-3357  
편집·디자인·기아 미디어·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81길 6 기아빌딩 02)317-4921  
편집·권지애, 윤연숙 디자인·조요형  
발행일·2015년 5월 1일(통권 제67호)  
사진·GURU visual 02)747-6118  
시스템 출력·사빛그래픽  
인쇄·(주)태산인쇄 02)853-6574 www.inpack.co.kr 인쇄인·서명현

〈Sulwhasoo〉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Sulwhasoo〉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Sulwhasoo〉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입니다.



## 펼 치 다

- 08  
품격 있는 삶  
예의, 아름다운 사람에게 따르는 향기
- 12  
피부 섬기기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名作의 향연
- 16  
동서고금이 만나다  
습관을 거부하며 긴장감에 주목하다
- 22  
新 공간을 보다  
예술을 탐하는 시간
- 28  
건너다  
스타일을 덧입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나다



## 누 리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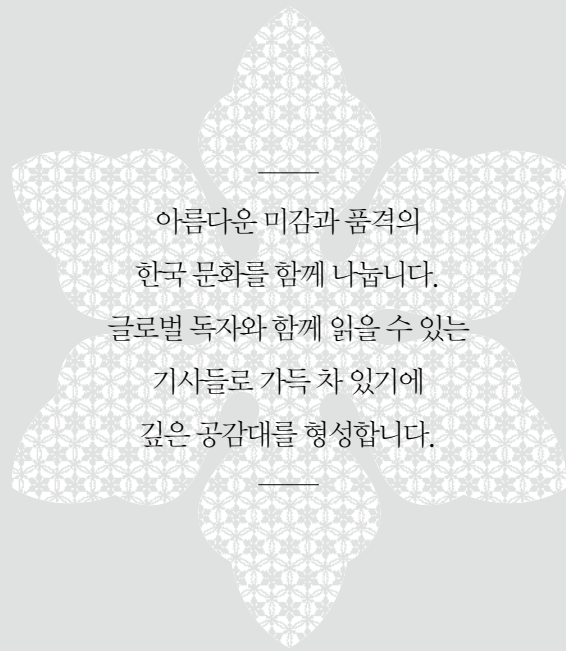
- 36  
설화인  
들꽃 같은 그녀, 김성경
- 42  
어우러지다  
실용과 예술이 그려낸 미학
- 48  
설화풍경  
삶의 결마다 꽃으로 가득하네
- 52  
설화보감  
피부 보필, 明潤으로 완성하니
- 58  
설화수를 말하다  
지혜로운 비책으로 되찾은  
맑고 투명한 기운
- 64  
디자인 기행  
알뜰도록, 샘나도록 아름다운 예술의 섬  
나오시마



## 익 히 다

- 72  
배움의 기쁨  
한 그릇 한 상에 선조의 지혜를 담다
- 78  
한국의 멋  
머리 위에 깃든 섬세한 꾸밈
- 82  
읽다  
슬픈 지구 속 야생의 삶
- 86  
설화애장  
행복하게 사는 것
- 88  
집 안 단장  
집 안으로 들인 공원 한 조각
- 90  
몸 단장  
손으로 만든 멋으로 스며들다
- 92  
마음 단장  
캔버스 위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
- 94  
설화 헤리티지  
오랜 집념이 낳은 미의 근간, 인삼과 자음단™





아름다운 미감과 품격의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눕니다.  
글로벌 독자와 함께 읽을 수 있는  
기사들로 가득 차 있기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 펼치다



## 예의, 아름다운 사람에게 따르는 향기 *Courtesy, the Fragrance of Beautiful People*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우려난 정갈한 태도가 사람을 아름답게 만든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로 스스로를 높이는 우리의 예의범절 문화를 들여다본다.

글 박경수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류로 드 골로디아

“군자에게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공이 스승에게 물었다. 왜 없겠느냐며 온갖 무뢰배들을 줄줄이 늘어놓는 공자의 대답 속엔 ‘용맹하지만 예의 없는 자(惡勇而無禮者)’가 포함되어 있다 (<논어>). 무례함이란 이렇듯 시대를 막론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공공의 적이였다. 당대의 성인군자로 불린 공자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만큼. 예禮는 무릇 인간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세상살이의 도리를 뜻한다. 그걸 실천하는 구체적 방법이 이른바 ‘예의범절’이다. 세상만사가 다 그렇듯 예의범절도 시대에 따라 바뀌지만, 거기에 갖든 의미까지 변하는 건 아니다. 예를 예이게끔 하는 기본 정신! 그건 바로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윗사람을 대할 때) 시선을 상대의 얼굴보다 위에 두는 것은 오만함이 되고, 띠[帶]보다 아래 두는 것은 근심함이 되며, 좌우로 두는 것은 간사함이 된다. 어른께서 말없이 서 계실 땐 발을, 앉아 계실 땐 무릎을 주시한다.” 이 전통 예법에서 중요한 건 시선의 각도가 아니라 정중한 자세로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마음이다. 그 어떤 격식이나 절차도 마음보다 위에 놓일 순 없다. 지금이라고 다

Tzu-Kun once asked his teacher, “Does a saint ever loathe someone?” Confucius said, “Of course,” and listed all kinds of hoodlums, including ‘those who are brave but uncourteous’ (The Analects of Confucius). Discourtesy is a public enemy that has not been welcomed. Even Confucius, the most respected saint in the Tang Dynasty, loathed it. Courtesy refers to the way of life which all mankind should uphold. Manners are the specific rules in the practice of courtesy. They change over time, like everything else, but their meaning does not change. The fundamentals of courtesy are respect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When talking to an elder,) It is arrogant to keep your eyes at a level higher than his/her face, worrisome to keep looking below his/her belt, and cunning to move your eyes left and right. When an elder stands up without saying anything, look at his/her feet; when he/she is seated, look at his/her knees.” What is important in this traditional rule of manners is not the eyesight



빈티지 트레이와 향수병은 바바리아, 유병은 상보당, 향합은 민속골동 제품.

를까. 입에 붙지도 않는 어려운 어법이나 절할 때 손을 포개는 방법보다 중요한 건 언행에 담긴 참 마음, 곧 진심인 것이다.

마음을 표현하는 방식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다. 일본인들은 평소보다 한 옥타브쯤 높은 톤으로 인사를 주고받는다. 중국인들은 장례식장 이외의 장소에선 목례를 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은 매번 허리를 깊이 숙이고, 절대 상대보다 먼저 몸을 세우지 않는다. 헤어질 때는 두세 번씩 계속해서 허리를 굽히기도 한다. “아사코와 나는 절을 몇 번씩 하고 악수도 없이 헤어졌다”라는 피천득의 회상(〈인연〉)처럼, 우리에게 좀 유난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게 그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방식이다.

흔히 하는 오해와 달리 옛사람들은 예의를 아랫사람들만의 의무로 여기지 않았다. 아무리 연장자라도 상대가 성인일 땐 ‘~해라’라고 하지 않고 ‘~하시게’라고 했다. 말을 낮추되 상대를 높이는 어법이다. 심지어 임금조차 자기보다 나이 많은 신하에게 경어를 썼다. 이 땅에서 예의란 이렇듯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향이었으니, 나이나 지위를 내세워 권위적인 언행을 일삼는 것은 우리의 예법과는 거리가 먼 무례함의 발로일 뿐이다. 예의를 지키는 건 자기를 낮추거나 비하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는 일이다. 예의는 인격을 다듬는 수양의 도구이고, 내가 남을 존중하듯 나도 남에게 존중받고자 하는 지혜의 소산이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문화적 수단이기도 하다. 오늘날 ‘예의범절’이라는 말에서 웬지 모를 고리타분함이 느껴지는 건 정신을 외면한 채 낡은 격식만 따지는 주입식 예절교육의 후유증이 아닐까. 공자 시대에도 지금도, 무례한 자는 여전히 꼴불견이고 예의 바른 사람은 여전히 아름답다. S

but the willingness to politely listen to others.

The way we express our feelings varies from country to country. The Japanese share greetings in a tone of voice about an octave higher than usual. The Chinese never bow anywhere but at a funeral, but the Japanese bow each time they greet others and never stand back up ahead of them. When they say goodbye, they bow two to three times. This is often misunderstood, but the traditional people did not think of courtesy as the duty only of younger people. Even when talking to a younger person, they would show respect when the person was a grown-up. Courtesy was interactive in traditional society, so talking and acting authoritatively just because one is older or higher in rank has been considered rude. Being courteous is not lowering or disregarding oneself but respecting oneself. Courtesy is a tool for developing discipline to have a more refined character, a product of the wisdom of earning respect by respecting others, and a cultural method of realizing a peaceful community. If one feels that ‘manners’ today are too tedious, it is because of the improper training that emphasizes only the old formality, not the spirit. What has not changed since the time of Confucius is that those who are rude are still unsightly, and those who are courteous are still beautiful.



매화 헤어 브로치와 진주 목걸이는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비단보는 KCDF갤러리.

## 다시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名作의 향연 *The Fest of Returning and New Masterpieces*

진정한 명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굳건한 빛을 발한다. 시간의 역사와 함께 과거에서 현재로 그리고 미래로 세대를 이어가며 더욱 단단한 자아를 만들고 있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 일러스트 임성구

자연을 기억하는 사람과 사람을 보듬은 자연의 소통에서 뿜어져 나오는 감동과 공감의 역사와 윤조에센스의 역사적 행보는 뜻을 같이한다. 자연에서 원료를 찾고 전통과 현대 과학의 발전적인 소통 그리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한 노력이 여심을 감동시키며 세대를 아우르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1997년 한국에서 출시된 윤조에센스는 스킨케어 첫 단계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로 획기적인 뷰티 카테고리를 창출함과 동시에 세계 뷰티 루틴을 새롭게 개척하며 파워풀한 효능을 널리 알려왔다. 이후 바다 건너에서 들어온 호사스러운 제품들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선두를 잃지 않은 윤조에센스의 참된 가치는 사용해본 이의 마음속에 감동을 남기며 단 하나의 에센스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전 한방서에서 찾은 5가지 귀한 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처방한 자음단™과 설화수의 독자적인 신규 기술로 한층 더 강력해진 부스팅 효과를 선보이고 있는 2015년의 윤조에센스. 네 번째 진화를 통해 역사성을 간직한 명작의 새로운 이야기를 다시금 생각한다.

Sulwhasoo's efforts to find precious ingredients in nature and to pursue constructive communication between tradition and modern science for true beauty touch have been touching the hearts of women as they show empathy beyond generations. First released in South Korea in 1997, First Care Activating Serum has created an innovative beauty category as a boosting serum for the first step of skincare, and newly explored the world's beauty routine with its efficacies. The true value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is that it impresses every user and links the generations as the ultimate serum. The 2015 version of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boasts an even more powerful boosting effect with JAUM Balancing Complex™, the optimum mixture of five precious ingredients found Asian medicinal herbs classics, and Sulwhasoo's new technology. A new legacy is beginning once again after 18 years of beauty heritage.

### 윤조에센스

자음단™이 메마른 피부의 균형을 맞추어 건강한 피부 윤기를 선사하는 첫 단계 에센스. 60ml/90ml





### 자여진에센스

인삼 캡슐의 강력한 효능으로  
깊어지는 주름을 탄력으로 차올리는  
안티에이징 인삼 캡슐 에센스.  
주름 개선 기능성 35ml/5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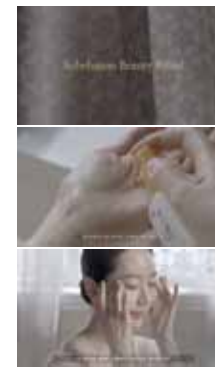
### 설화수 뷰티리추얼

조화와 균형 설화수의 철학이 담긴 특별한  
손길에서 완성되는 홀리스틱 뷰티.  
설화수 뷰티 리추얼은 피부 본연의 건강함  
에서 우러나는 피부 윤기를 실현하는  
미용법으로, 피부 균형을 맞추어 근본을  
다지는 균형 필요한 기본 보습을 채우는  
기본, 그리고 고민별 집중적인 케어인  
개선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 우선 따뜻한 손의 온기에 윤조에센스의 향을 담아 마음의 조화를 다스려준다.
- 그 다음, 가볍게 두드리며 피부 깊은 곳까지 수분과 보습이 전달될 수 있게 한다.
- 마지막으로 얼굴의 탄력을 높여주는 주요 포인트를 눌러 건강한 안색과 활력을 되살린다.

조화와 균형의 지혜로 빛은 피부 본연의  
윤기, 설화수 뷰티리추얼을 통해 홀리스틱  
뷰티를 경험해보길 권한다.

[www.youtube.com/sulwhasookorea](http://www.youtube.com/sulwhasookorea)



설화수의 참된 노력이 빛은 또 하나의 명작名作, 바로 자여진에센스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이 들어 늙어가는 주름과 탄력 저하는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피부 고민이다. 자여진에센스는 피부 위 노화 현상을 근본적으로 케어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혁신적인 현답을 제공하고 있다. 피부 속에는 탄력을 결정짓는 탄성막이 있는데 이것이 힘을 잃고 무너지면 주름이 피부 속으로 깊고 넓게 뻗어나가는 주름줄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듯 힘이 없어 무너진 피부탄성에 인삼의 강력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강화시켜 주름을 속에서부터 차올리며 피부 탄력을 이끌어낸다.

그간 피부에 흡수되기 힘들었던 홍삼 다당체를 캡슐화하여 흡수시키는 매크로 진세니스피어™와 흡수율을 4배 높여 인삼의 강한 효능 물질을 피부 깊숙하게 전달하는 마이크로 진세니스피어™는 자여진에센스의 핵심 기술력이다. 자여진에센스는 서서히 열어지는 주름과 손끝에서부터 느껴지는 탄력으로 감동을 선사한다. 세월 앞에 포기할 뻔했던 안티에이징의 꿈, 흉내 낼 수 없는 새로운 명품의 전율과 함께 얼굴 위에서 실현되고 있다. S

Another masterpiece kneaded with Sulwhasoo's true efforts is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Increasing wrinkles with age and loss of elasticity have always been the biggest skin concerns even if one is free of stress. One's skin has an elastic barrier that determines its elasticity, and deep-rooted wrinkles stretch deep and wide into the skin when the barrier loses strength and collapses.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supplies the powerful nutrients of ginseng to fortify the elasticity and to push up the wrinkles from deep within for skin elasticity. The core technology of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is Macro Ginsenisphere™, which encapsulates red ginseng polysaccharides for faster penetration, and Micro Ginsenisphere™, which increases the penetration fourfold for deeper penetration of ginseng's powerful active substances. The dream of anti-aging that one has almost given up on is realized on one's face with this new incomparable masterpiece.

### 자여진에센스 사용법

#### Step 1

아침 저녁 자음수 사용 후 500원짜리 동전 크기로 손바닥 위에 펴핑한다.  
Every morning and evening, following Essential Balancing Water, pump a coin-sized amount onto your palm.



#### Step 2

깨끗한 손끝으로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펴버린다.  
Use clean fingertips to spread Capsulized Ginseng Fortifying Serum from the center of your face to the contours.



#### Step 3

손바닥을 이용해 부드럽게 얼굴을 감싸듯 두드리며 흡수를 돕는다.  
Use your palms to gently wrap your face, and pat for greater penetration.



# 습관을 거부하며 긴장감에 주목하다

## Tallur L. N.

탈 루 엘 엔

처기인 한국의 대구와 고향인 인도를 오가며 전 세계를 무대로 작품활동을 하는 아티스트 탈루. 기후 조건과 문화가 지극히 다른 두 나라에 사는 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자 습관을 허용하지 않는 삶의 방식이 자신의 예술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의 '일상'은 모든 촉각이 예민해지는 '여행'의 다른 이름이다.

글과 진행 최태원 사진 전재호 도움 주신 곳 아라리오 갤러리



Veni, vidi, vici (I came, I saw, I conquered), 2500×600×800cm, 2012

**회화와 박물관학을 전공한 것은 작품활동을 위한 자의적 선택이었나? 전공은 어떤 영향을 끼쳤나?**

나의 선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공'이나 '전문 분야'라는 개념이 붕괴되고 있다고 믿는다. 회화를 전공했다고 화가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저널리즘을 공부했다고 해서 저널리스트가 되는 것도 아니다. 저널리스트와 작가와, 시인의 경계란 게 굉장히 미묘하지 않은가. 사람들은 예술, 과학, 수학, 심리학 등 분야를 나누길 즐기지만 내게 그런 구분은 무의미하다. 나는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하기를 즐긴다. 굳이 전공을 묻는다면 '인생 자체'라고 말하겠다. 세상의 모든 분야는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고, 그것이 인생 아닌가.

**문화가 다른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불편을 겪지는 않는가?**

나는 오히려 타국에서의 작업을 즐긴다. 통역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다음에 할 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의 생활은 인도와 한국이 얼마나 다른 문화권인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다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든다. 결국 처가에서의 시간은 나의 생각과 행동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Was it your decision to major in painting and museology for your artistic activities? How have your majors affected you?**

It was my decision, but I basically think that the concept of "major" or "area of specialization" is breaking down. You don't have to be a painter because you majored in painting, and you don't have to be a journalist because you majored in journalism. I enjoy thinking in various ways. If you ask me what my major is, I would say it is "life itself." All fields in the world are interconnected, and isn't that what life is all about?

**Don't you find it difficult to work in a place with a different culture, as a foreigner?**

I actually enjoy working away from home. I get to think about the message I want to deliver through the process of translation, and I manage to get some time to organize my thoughts. Living in South Korea has made me realize how different South Korea is from India. The South Koreans have a completely different way of life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This makes me think about everything differently. My time with my in-laws stimulates my thoughts and behaviors.



**한국살이 10년이 넘었다. 당시의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어떻게 다른가?**

한국도 달라졌겠지만 나도 달라졌다. 성장을 하고 변화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첫인상은 환경이 무척 깨끗하고 사람들은 너무 바쁘다는 것이었다. 그후 한국인의 삶이 왜 그런지 깨닫게 되었다. 한국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교육받고 훈련된다. 심지어 미술 교육도 그렇다. 학생들의 데생이나 스케치 실력은 오히려 나보다 더 뛰어났다. 그러나 창조적인 것은 공부하지 않고 그저 반복만 한다. 이러한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았다. 습관을 깨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한 방향으로 초점이 맞춰진 교육, 생산성만 강조되는 문화, 문제제기가 허락되지 않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당신이 생각하는 전통문화란 어떤 개념이며,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전통’이란 매우 모호하고 논쟁적인 대상이다. 고궁에서 한복을 입고 전통무용이나 전통음악을 연주하는 것을 전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물론 어떤 국가든 자국의 문화 특성을 묘사하기 위해 특정한 형태를 만들어 외국인에게 보여주고 싶어 한다. 특히 한국은 전통을 드러내는 데 있어 규모에 굉장히 신경을 쓴다. 대구에도 훌륭한 현대미술관이 있고, 오직 종횡만을 위한 박물관도 있다. 하지만 나는 한국인이 전통문화에 관해서 100년 전에 입던 옷이나 물건들을 보여주고 싶은 건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보여주고 싶은 것과 실재하는 것이 언제나 일치하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한국의 아름다움에 대한 질문을 자주 받는데, 나는 언제나 무언가 건설되고 있는 한국의 과도기적 역동성이 아름답다고 느낀다.

**당신의 작품에 대해 “전통을 유머러스하게 파괴하고 있다”고 하는 비평가들의 평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일단 내 작품은 전통 파괴라기보다는 문제제기라고 말하고 싶다. 다시 생각하게 만들기 위한 자극 같은 것이다. 우리 삶은 점점 더 우스꽝스럽고 부조리해지고 있다. 이유는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가 생각하고 느

**It has been more than 10 years since you moved to South Korea.**

**How is South Korea different today compared to back then?**

As South Korea changed, I have changed as well. I have grown and changed. My first impression of South Korea was that it was very clean and that the people were very busy. Then I realized why this has to be the way of life for the people of South Korea. In South Korea, almost everyone is educated and trained in similar ways. This applies even to art education. Many students can draw or sketch better than I do, but they just repeat what they can do, without creating something. So I think about how to find positive aspects in this system. I think it might help to break the habits. The educational system that has one direction, and the culture that emphasizes productivity almost exclusively, without allowing the suggestion of problems, should change.

**What is your view of the concept of traditional culture, and what do you think about South Korea's traditional culture?**

“Tradition” is a very ambiguous and debatable subject matter. Can you call it tradition if you dress up in Hanbok and perform traditional dances or music in a palace? Every culture hopes to create a certain set of national characteristics and present these to foreigners. In particular, South Korea is very aware of the scale when it's presenting its tradition. Daegu has a great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there is also a museum just for bells, but I think you should try to find out if the South Koreans want to show what their ancestors were wearing or using 100 years ago — the traditional culture — and if what you want to show is always consistent with what is actually shown. I am often asked about the beauties of South Korea, and I always find it beautiful that South Korea is always building something with transitional dynamics.



Path finder, 91.44×182.88×127cm, 2013



나쁜 것을 제거하려고 기다리는 상태를 표현한 <금속 물질의 톱니> 작업에 한창인 작가 탈루. Carrying capacity, 37(h)×36×23cm, 2014

끼는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우습다. 우리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직접 전통적이라고 행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한글의 경우가 그렇다. 이 세상의 모든 문자는 진화한다. 한글이 500년 역사 속에서 진화할 수 있었던 건 우리가 손으로 직접 기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로 글쓰기를 하면서, 한글의 서체는 진화를 멈추었다. 만약 원시 부족이 갑자기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래도 그들은 여전히 원시인이다. 바로 여기에서 긴장감과 부조리가 존재한다. 내 작업의 주된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온다. 유리만 사용하던 인류가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진화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혼란스러움도 동시에 느낀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완전히 준비된 상태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전통, 즉 옛 것을 지키고 싶은 의지와 새로운 것을 쓰고 싶어 하는 모습에서 긴장감, 부조리, 우스꽝스러움이 생겨난다. 이것이 나를 생각하도록 자극하고 문제제기를 하게 만들며 작업의 주된 아이디어가 된다.

**‘긴장감’이란 단어를 즐겨 쓰는데, 그 의미를 좀 더 설명한다면?**

현재 아라리오 갤러리에서 하는 전시의 주제도 문턱, 경계(Threshold)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하며 긴장 상태에 있지만 달리 보면 긴장하고 있지 않다. 민방위 훈련과 군사 훈련 등을 하는 건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있다는 뜻인데, 동시에 평온해 보인다. 생각만큼 불안에 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불안과 평온의 경계가 나에게 ‘Tension’의 의미이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인 <금속 물질의 톱니>는 무언가를 갈고 잘라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뭔가 나쁜 것을 제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 바로 이것이 ‘긴장감’이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지금까지 해오던 작업을 계속할 것이다. 각국은 자국의 역사를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다시 쓴다. 특히 미국과 일본, 중국이 이 같은 일을 잘 한다. 각국이 자국의 역사를 다른 이야기 또는 다른 사건으로 재생산하는 행위에 대해 작가로서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작업을 할 것이다.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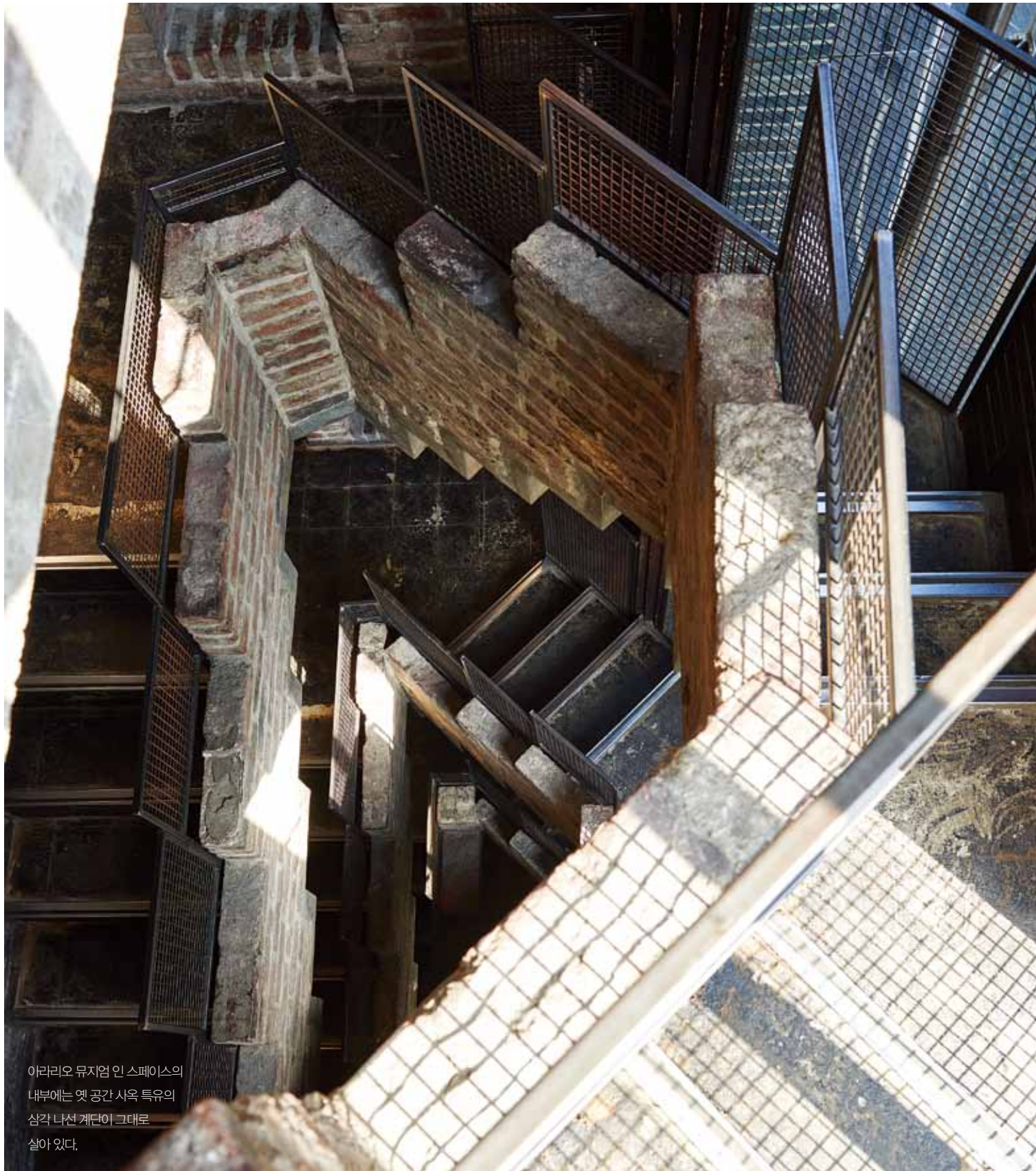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ritics’ criticism of your work, that it is “humorously destroying the tradition”?**

First of all, I want to mention that my work does not destroy tradition but suggests problems. It stimulates the people’s minds, to make them think again. Our lives are becoming more and more ridiculous and irrational. This is because people do not act in accordance with how they truly think and feel. That is unnatural and hilarious. What is defined as tradition in our minds is different from what we perform as tradition. For example, there is Hangeul. All textual characters in the world evolve. Hangeul has been able to evolve throughout the 500 years of its history because it has been recorded with our own hands. When we began to type on the computer; however, the Korean fonts have stopped evolving. Let’s assume that a native tribe begins to use plastic cups all of a sudden, but they are still tribal people. This is where we find tension and irrationality. This is where I get my ideas most of the time. It is part of the evolution of humankind that we now use plastic in addition to glass. Of course, we also feel confused when we’re confronted with new things. We’re not completely ready when we accept new things. Tension, irrationality, and ridiculousness come from the willingness to cherish tradition and the desire to use what is new. This stimulates me to think and suggest problems, and gives me ide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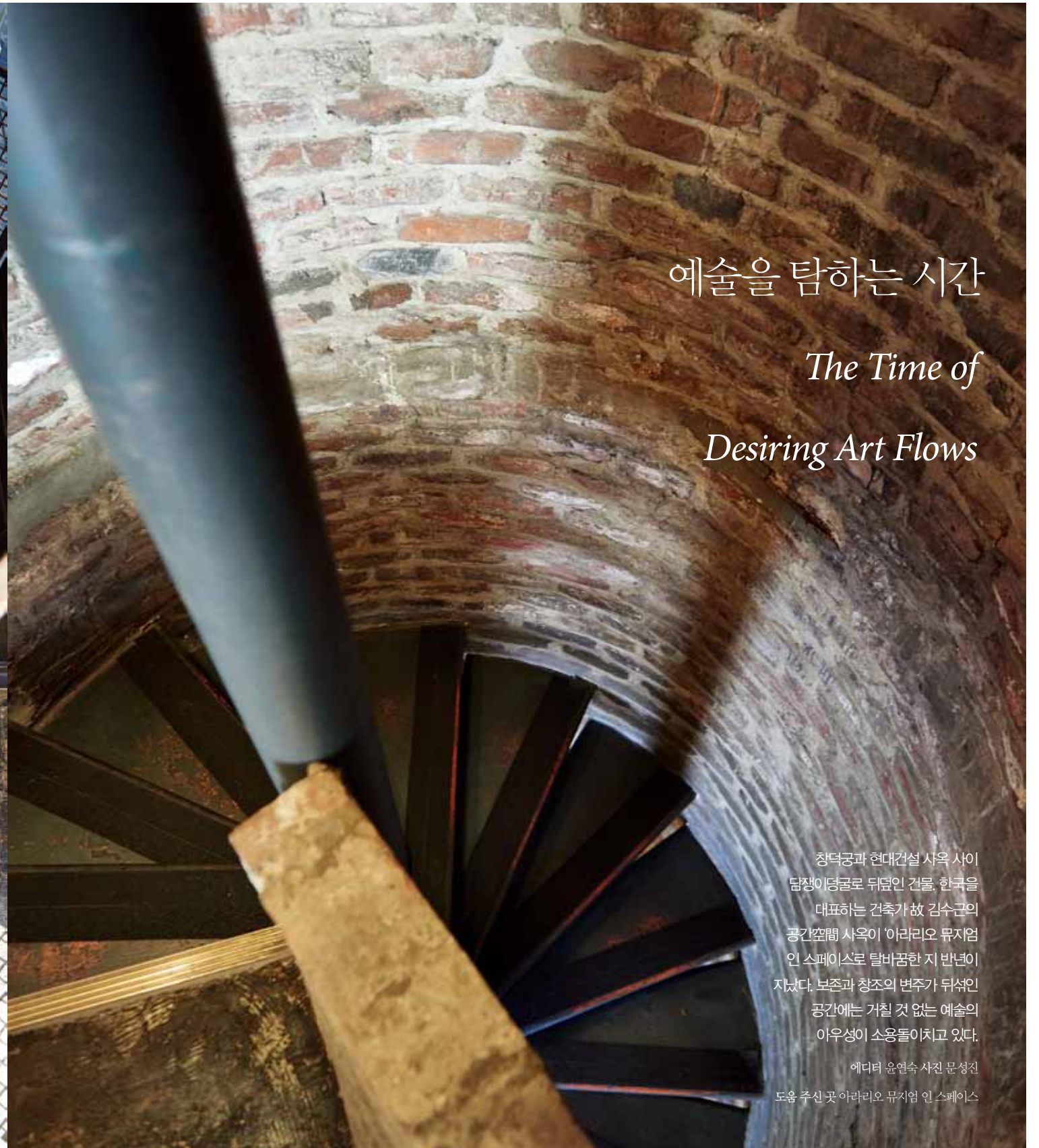
**I want to hear about your future plan.**

I’ll continue the work I’ve been doing. Each country writes its history in a way that fits its taste. America, Japan, and China are particularly good at doing this. I will deliver the message of how each country reproduces the story of its history as other stories or other events, from an artistic perspective.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의 내부에는 옛 공간 사옥 특유의 삼각 나선 계단이 그대로 살아 있다.



예술을 탐하는 시간  
*The Time of  
 Desiring Art Flows*

창덕궁과 현대건설 사옥 사이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건물.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故 김수근의 공간(空間) 사옥이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로 탈바꿈한 지 반년이 지났다. 보존과 창조 의 변주가 뒤섞인 공간에는 거칠 것 없는 예술의 아우성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문성진  
 도움 주신 곳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이 머물렀던 공간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일상의 풍경이 된 지 오래고,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시의 모습에서 공간의 중요성은 점점 퇴색되는 게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새로우면 무조건 용서가 된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공간에는 머물렀던 존재의 흔적이 커져이 스며들어 있다. 공간의 주인이 떠나간 이후에도 남은 감정들은 부유하면서 공간을 특징하기도 한다. 공간의 주인이 한국을 대표하는 건축가 김수근 선생이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한국 건축의 역사에 획을 그은 천재 건축가 김수근(1931~86년) 선생이 1971년에 착공해 7년 동안 완성한 공간空間 사옥은 선생의 사무 공간이자 월간 <공간>의 편집실, 소극장 '공간사랑' 등으로 사용돼왔다. 한옥의 막힘 없는 공간 연결 방식을 도입해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현대 건축으로 되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우리 건축의 상징적 존재가 된 건물이다. 그러나 건축의 이상향을 보여주었던 공간 사옥도 2013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존재의 위기를 맞았다. 공간사무소의 부도로

Signs of existence smear every layer of space. Even when the owner of the space has left, the remaining emotions sometimes float and specify the space. This will be even more true if the owner of the space is Sir Swoogeun Kim, a leading architect in South Korea.

The company building, which Sir Swoogeun Kim (1931-86) completed after 7 years of construction, since 1971, was his office space and accommodated an editorial room for Monthly <Space> and Small Theater's "SPACE Love." He adopted the borderless connectivity of the Korean house and revived the beauty of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and combined it with contemporary architecture. This building has become a symbol of Korean architecture, but this company building, which used to present the ideal of architecture, confronted an existence crisis in 2013. It was almost sold at an auction due to the bankruptcy of <Space>, but it was acquired by Arario Gallery, which transformed it into "Arario Mu-

1 불박이 선반조차 고스란히 남긴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의 벽  
2 유일하게 여러 작가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복층 구조의 3층 공간  
3 인간의 육체와 정신, 삶과 죽음, 아름다움에 대한 탐구를 해온 영국 YBA(Young British Artist) 대표 작가 마크 퀴의 <키스>.



경매 위기에 처했던 공간 사옥은 아라리오 갤러리에 인수되어, 지난해 9월 1일 현대 미술 작품을 전시하는 문화공간인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로 탈바꿈했다. 이름과 용도가 바뀌었지만 김수근 선생의 철학이 숨 쉬는 건물은 거의 원형 그대로 보존하였다. 아라리오 뮤지엄의 공간 철학인 '보존과 창조' 덕분이다. 구조는 물론 불박이 선반, 화장실, 세면대 등 생활의 흔적까지 전혀 훼손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겼다.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계단 난간 설치와 냉난방 시설, 전시용 조명을 갖춘 것이 전부다. 작품을 빛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창문은 그대로 두었다.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에 들어선 관람객들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은 계단과 224cm 높이의 낮은 천장, 여러 개의 방 등 공간 사옥 특유의 구조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며 작품을 만나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한눈에 파악되지 않는 내부와 동일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보는 이의 위치에 따라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뮤지엄은 공간과 작품이 어우러지는 진지한 감흥을 느낄 수 있다.

seum in Space," a cultural space for contemporary artworks, on September 1 of last year. Its name and purpose have changed, but the philosophy of Sir Swoogeun Kim reflected in the building has mostly been preserved, thanks to Arario Museum's philosophy of "preservation and creation." The space layout and even the built-in shelves and restroom sinks have been preserved without alteration. The only additional features are the rails along the stairs, the cooling/heating systems, and the exhibition lighting for the safety of the visitors. Even the windows have been left unchanged despite the fact that the artworks have to be protected from light.

The visitors of Arario Museum in Space have an interesting experience inside this former office building with very narrow staircases, low ceilings (only 224 cm in height), and many rooms. Even though you cannot see the interior layout at a glance, the museum presents different views from different perspectives to give you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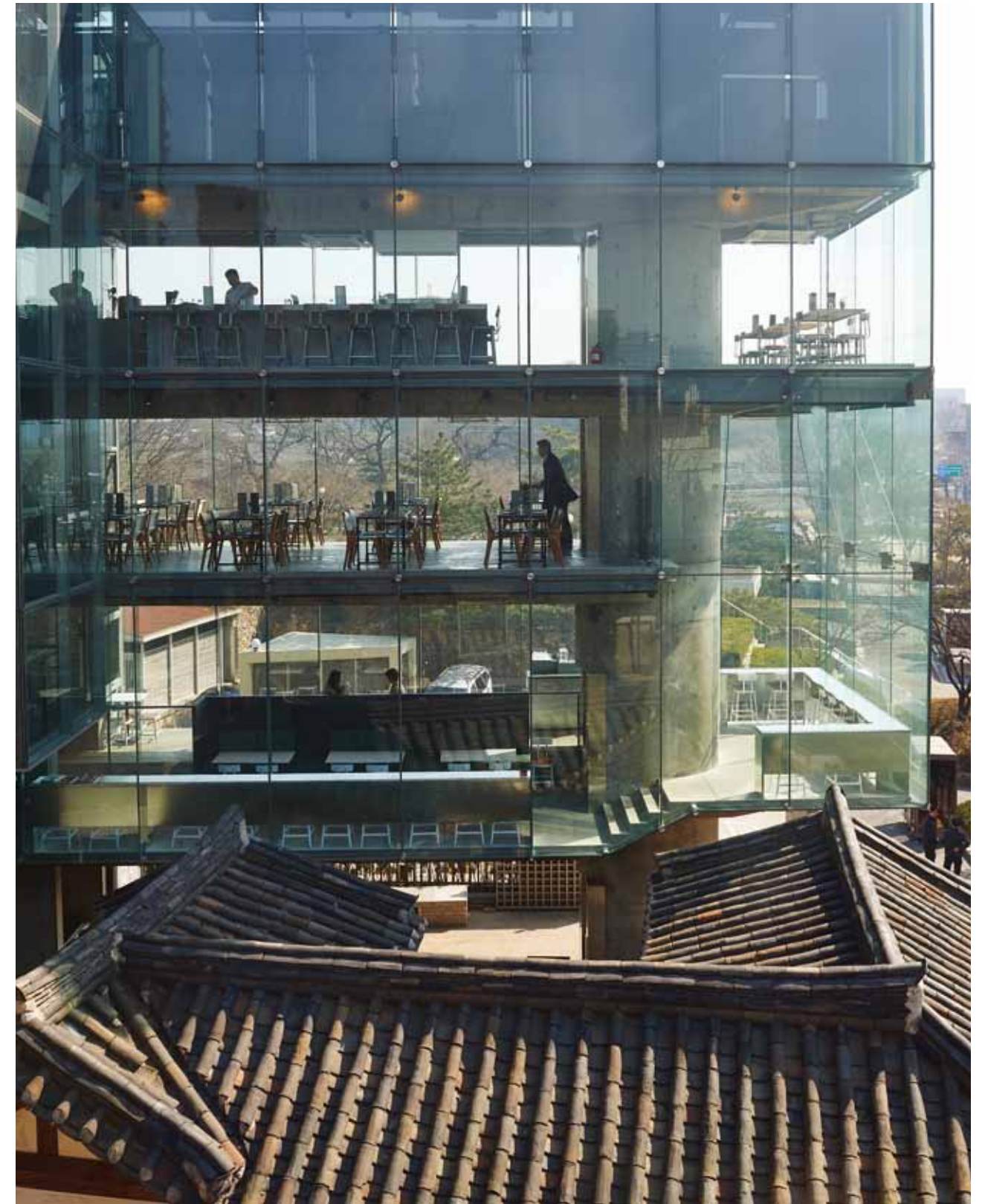




1 공간그룹 3대 대표 이상림이 증·개축한 작은 한옥은 카페 '한옥인 스페이스' 변신했다.  
2 '한옥인 스페이스'에서는 팔죽, 팔빙수, 고로케 등 전통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지하 층에서 시작해 지상 5층으로 삼각 나선계단을 오르며 관람객들은 크리스티안 마클레이, 권오상, 백남준 등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3층에 오르면 복층 구조로 넓고 탁 트인 공간을 만나게 된다. 이곳에는 공간 하나에 작가 한 명의 작품을 설치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 바버라 크루거, 신디 셔먼 등 여러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5층까지 오르면 좁은 나선계단으로 연결된 건물의 다른 한쪽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하행의 2층과 3층 사이는 김수근 선생의 작업실이 있던 곳이다. 이곳에는 독일의 엔디 워홀로 불리는 요르그 임멘도르프의 작품이 있다. 출구로 나오면 공간 그룹의 2대 대표인 건축가故 장세양이 증축한 유리 신사옥이 바로 보이는데, 이곳은 현재 비원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레스토랑 '다이닝 인 스페이스'로 변모했다. 근대 건축문화 자산으로 손꼽히는 공간 사옥을 최대한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미술이라는 문화적 가치를 더해 대중을 위한, 그리고 예술을 위한 공간으로 진화한 아라리오 뮤지엄 인 스페이스. 예술 작품 같은 공간에서 예술을 마주하는 시간은 오롯이 예술이 된다. S

serious impression of space and artworks. The viewers can appreciate the works of Christian Marclay, Osang Gwon, and Namjune Paik while climbing the triangular spiral stairs from the base level to the fifth floor. They particularly meet a wide-open loft space on the third floor. After climbing up to the fifth floor, they will come down to the other side of the building through a narrow spiral staircase. The space between the second and third floors on the way down is where Sir Swoogeun Kim's studio used to be. As one exits the building, one can see the new glass building expanded by Late Seayoung Chang, the second-generation representative of <Space>. This place has become "Dining in Space," a restaurant with a great view of the garden. Arario Museum in Space has preserved the office building of <Space>, which is known as an asset of the modern architecture of Korea, with the addition of the cultural value of contemporary art.



공간 그룹의 2대 대표인故 장세양 건축가가 증축한 신사옥은 현재 레스토랑 '다이닝 인 스페이스'가 되었다.



## 스타일을 덧입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다 *Adding a layer of style to create a new trend*

중국에 펼쳐진 설화수의 배려 깊은 아름다움은 간간하게 닫혀 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며 진정한 한국 명품名品으로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코비스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 상해는 거대한 콘크리트 건물로 둘러싸인 메마른 상업 도시의 상징으로 꽤나 단단한 선입견적 시선에 갇혀 있다. 하지만 사람 사는 곳에서 나는 인간적인 향기를 그 어떤 곳보다 더 깊고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상해上海다. 제2의 파리를 꿈꾸며 생겨난 와이탄 강변에는 아시아 최고의, 이름값 하는 유명 브랜드들과 건물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세계적인 셀럽 세프들은 자신의 이름을 새긴 현판을 걸고 모던의 극치를 달리는 레스토랑을 열었다. 화려함에 둘러싸인 고급스러운 지역은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지만 이 도시의 진수를 결들인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은 낡고 오래된 것이 서로 공존하며 마주하게 되는 광경들을 만났을 때다.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시간이 함께하는 곳에는 말그대로 생동맞은 장면들이 구석구석 숨어 있다. 공장지대를 빼곡히 채운 '억' 소리 나는 예술 작품들, 럭셔리 패션 스트리트 사이에서 유유히 휘날리는 빨래, 정자 아래서 러닝셔츠만 입고 장기 두는 할아버지 옆 커피를 마시고 있는 금발의 관광객들... 상업적이라 손사래 치기에는 너무나 인간적인 상해는 이렇듯 신식 위에 구식을 덧입고 새로운 광경들을 매일매일 만들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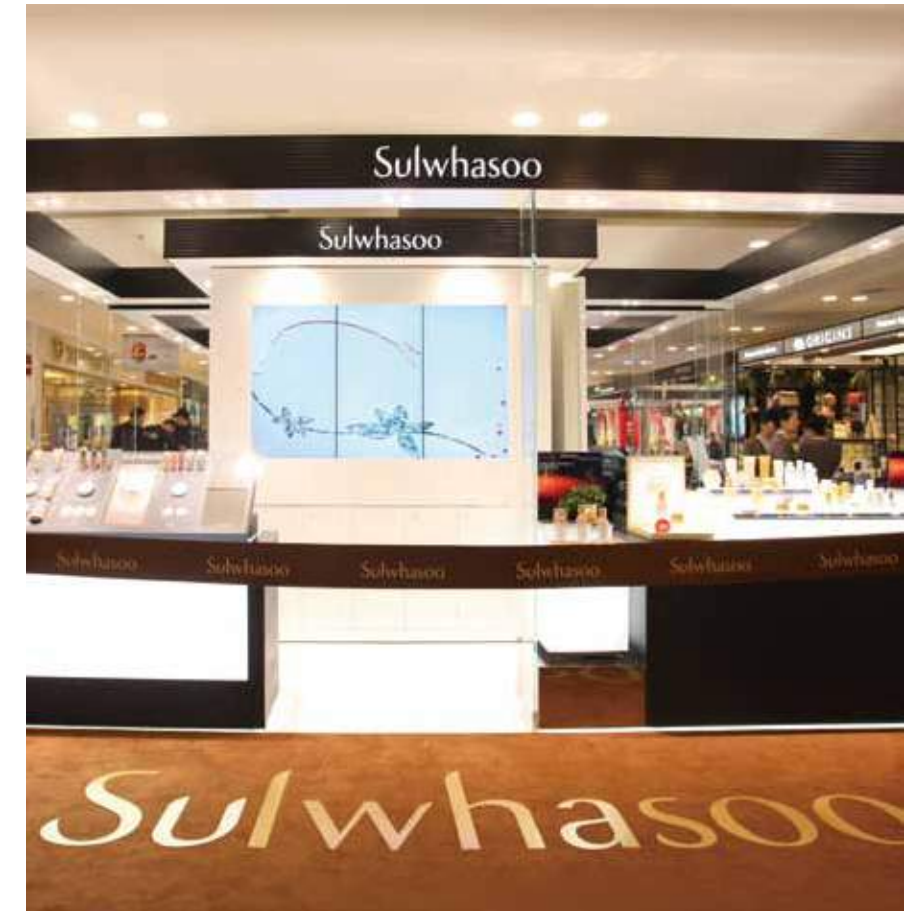
### 직접 써본 후의 감동은 계속 이어진다

중국 내 가장 큰 도시이자 소비지로 통하는 상해와 북경은 물론 주요 도시에서 설화수는 단순 화장품 이상의 격을 갖춘 기품을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으로 통한다. 이는 밖으로 보이는 외면의 아름다움은 물론, 조화와 균형을 통한 내면의 아름다움까지 추구하는 설화수의 가치가 이곳에서도 넓게 소통되고 있음을 뜻한다.

“지나치게 화려하고 꾸민 듯한 인상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죠. 그런 점에서 은은하면서 기품 있는 향을 가진 설화수는 저의 가장 신뢰 깊은 파트너이기도 합니다.” 패션 포털 사이트에서 패션 디렉터를 활동 중인 범상영 씨는 론칭 이래 지금까지 설화수를 사용하며 효능에 대한 감동을 전한다. “저는 특히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합니다. 사용할 때만 피부 겉에서 반짝 효능을 발휘하는 다른 글로벌 브랜드 제품과는 달리 윤조에센스와 자음생크림은 서서히 피부 속에서부터 힘을 채워주는 느낌이었을까요? 대륙성 건조 기후 탓에 늘 생기 없고 칙칙함을 느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 설화수를 사용한 후 확연히 달라진 피부를 손으로 직접 느껴볼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중국 내 설화수 매장 입점 지역



2014년 12월에 오픈한 중국 창사 왕푸징 매장

### The strong impression continues

Sulwhasoo is the first essential for quality and elegance beyond mere cosmetics in Shanghai, Beijing, and other major cities of China with the most powerful consumers. This means that Sulwhasoo's value to pursue internal beauty through “Harmony and Balance” is widely communicated across China. “If you are too dressed up, you make people uncomfortable, so Sulwhasoo, with its subtle and elegant fragrance, is my most reliable partner,” says Sangyoung Beom, a fashion director on a fashion portal site. She also wrote about her impression of Sulwhasoo ever since she was introduced to it at the time of its launch. “I am a faithful believer in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I used to be stressed because my skin lacked vitality and looked dull due to the dry continental climate. I still can't forget the dramatically different feeling of my skin when I touched it after using Sulwhasoo for the first time.”





©Bruno Mirand/Hemis/Corbis



©Michael Freeman/Corbis

## 아시아 뷰티의 중심으로 우뚝 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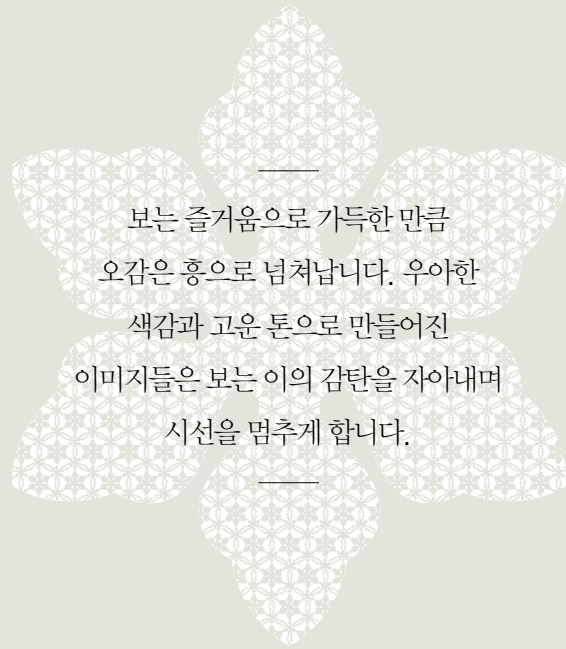
드넓은 대륙의 나라 중국에는 수많은 피부 타입이 존재한다. 지역별 기후 차이에 따른 피부 고민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모두가 원하는 것은 심플하다. 바로 탄력과 윤기 그리고 생기 넘치는 피부일 것. 설화수는 이러한 니즈에 비교할 바 없는 제품력과 진정성 있는 브랜드 스토리로 2011년 3월 중국에 론칭하여 여성들의 마음을 빠르게 사로잡았다. 2011년 진출 이후, 현지 주요 도시의 백화점에 52개 매장을 확장하며 연 평균 145%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설화수 매장으로의 나들이는 단순히 제품을 구입하기에 앞서 바쁜 일상에서의 여유와 활력을 찾기 위함이라고 말한다. 매장에 들어서면 순간 느낄 수 있는 감성 서비스는 오감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 피부 타입 별 꼼꼼한 일대일 상담과 섬세한 제품 테스트는 나의 아름다움을 한층 업그레이드시켜주리라는 믿음을 선사한다. 또한 중화권의 오스카 상인 '금마장상'을 수상한 배우 량장이 설화수 매장을 방문, 제품을 직접 구입하는 등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윤조에센스, 자음생크림 등 베스트셀러 제품들은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며 중국 내에서는 물론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 즉 요우커에게도 전폭적인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듯 중국에서도 여심을 간파하며 아시아 뷰티의 중심으로 우뚝 선 설화수. 한방과 자연의 이치를 바탕으로 현대과학의 기술력과 설화수만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S

### Standing tall at the center of Asian beauty

Mainland China has various climate conditions from region to region, but what everyone basically wants is simple: skin with elasticity, radiance, and vitality. Sulwhasoo was launched in China in March 2011, with powerful products and an authentic brand story for these needs. It quickly captured the hearts of women. Since 2011, it has opened 52 stores at department stores in major cities, and has recorded 145% average yearly growth. Local customers say that a trip to a Sulwhasoo store is more than a trip to make a purchase as it brings fun and energy to their busy lives. Sulwhasoo has become more popular ever since Liangjing, an actress and winner of Gold Horse Awards, the Oscars of Greater China, visited a Sulwhasoo store to purchase products herself. The best-selling Sulwhasoo products, such as First Care Activating Serum EX and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Cream, have become million sellers and are widely supported and loved by the consumers in China and the Youke, the Chinese tourists in South Korea. The technology of modern science and Sulwhasoo's ceaseless efforts continue based on the laws of Asian medicinal herbs and nature.

한것과 새것의 조화가 새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중국 상해에서는 어디에서나 모한 풍경들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구미각



## 들꽃 같은 그녀

뉴스를 진행했던 시기에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던 그녀가 '오늘'을 산다. 예능 프로그램에 끼어서 시원하게 속내를 말하고 드라마에선 주연을 꿰차며 연기를 한다. 낯설고 어색하지만 어쨌든 재미있다. 종종 의도하지 않은 삶의 변화편이 더 짜릿할 수 있는 법이니까.

에디터 박지현 사진 박재형

# Kim

김성경

# Seong Kyeong





3년 전 쌀쌀한 겨울쯤 그녀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기억을 되살리자면 그녀는 종합편성 채널이 생기면서 프리랜서로 활동 영역을 넓게 다지려던 참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대충 이런 이야기가 오갔다. 출렁이는 방송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장 같은 삶을 벗고 다양하게 도전하겠노라, 그녀의 다부진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후 그녀가 활동하는 모습을 종종 뉴스로 접하곤 했다. 예능 방송에서 속내를 시원하게 털어놓거나 시사 토크쇼에서 아무지게 진행하는 모습은, 어쨌든 예상하던 바였다. 그런데 말이다. 드라마 제작발표회에 등장한 그녀의 모습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 그것도 한 번의 조연을 거쳐 바로 주연을 거머쥐었다니, 생각보다 대단한 전향이었다.

“신기하게도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예능 프로에 나가서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시사 토크쇼 <강적들> 작가가 연락을 해왔고, 다시 <강적들>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드라마 제작사에서 섭의를 해온 거예요. 방송에서 얘기하는 모습과 주인공 캐릭터가 딱 떨어진다면서요.” 처음에는 손사래를 치고 돌아섰다. 말도 안 된다면서. 그러다 언니(김성령)에게 전화를 했더니 의외의 지지 발언이 이어졌다. 지금까지 진행자 위주로 활동했으니 이제 생각의 폭을 넓혀도 되지 않겠냐면서, 배우 언니가 밀어주니 그제야 연기에 도전할 용기가 생겼다.

굳이 첫 작품을 따지자면 지난해 방송된 SBS <청담동 스캔들>이었다. 자주 눈에 띄지 않는 역할이



었지만 시청률만 21%를 찍었으니 첫 드라마 입성치고는 괜찮은 편이었다. 그러다 올해 MBC드라마넷에서 방영된 <태양의 도시>에서 당당히 주연을 꿰찼다. 성공을 향해 무섭게 돌진하는 불도저 같은 역할이었다. 아니, 그녀 내면에 연기자로서의 세팅 버튼이라도 숨겨져 있었던 걸까.

“제작사 대표의 주문은 딱 한 가지였어요. ‘김성령 씨는 연기 배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만 보여주세요’ 했죠. 다행히 연기에 대한 주변 평가는 괜찮은 편이에요. 한번은 조형기 선배가 저에게 ‘머리 잘 썼다’고 하더라고요. 어설프게 연기학원 가서 연기자 흉내 내는 것보다 너의 모습을 담백하게 보여준 게 더 좋았다고요.”(웃음)

하기야 최근 아나운서 출신 연기자들이 호평을 받는 경우가 잦아졌다. 백지연, 오상진, 여기에 그녀까지 합세해 연기자로 안타를 치지 않았는가. 이러한 성공에는 그녀 스스로도 인정하듯 아나운서들의 안정적인 발음과 발성이 뒷받침되어 가능했을 터였다. 아나운서로 활동하면서 이미 받은 연기 연습을 해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1993년 SBS 아나운서로 방송을 시작했으니 그녀는 벌써 20년 넘게 방송가에서, 그야말로 종횡무진 생존하고 있다. 활동 중인 현역 선배를 꼽는다고 해봐야 정은아, 이금희 아나운서 정도. 그녀가 밝히는 생존 비법은 아주 간단했다. 자기가 맡은 일은 시원하게 추진하고 깔끔하게 마무리하기. 여기에 솔직하고 강직한 성격이 덧붙여졌다. 맞는 것과 아닌 것이 확실하다. 좋고 싫은 것도, 분명하다.

“마흔을 넘기면서 한 가지 지혜가 생겼어요.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을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죠. 가령 아나운서 시절부터 기획이랄까 진행의 맛은 타고난 것 같았지만 남을 웃기는 재능은 아무리 감을 잡으려고 해도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요즘은 나에게 없는 것을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건



누군가의 도움을 받자 생각해요. 이번에 토크콘서트를 기획할 때도 큰 흐름은 제가 가져가고 못하는 건 과감하게 숙이에게 넘기면서 균형을 잡았어요.”

그랬다. 기획적인 장기를 십분 발휘한 것이, 최근 개그맨 김숙과 공동 진행한 오페라 토크콘서트 〈나쁜 여자〉였다. 유명 오페라 작품 속 여주인공을 심판대에 올려 시대별 여성 유형을 해석한다는 독특한 취지였는데 그녀는 기획부터 섭외, 진행까지 웬만한 동선에 거의 참여했다.

“이번 기획의 한 수는 개그맨 김숙과 저의 조합이죠. 우선 오페라와 김숙의 조합이 새롭고 저와 김숙의 연결도 신선하다는 평이 많았어요. 진행을 할 때도 서로의 장점을 확실히 살렸어요. 숙이가 관객들을 확 띄워놓았다가 제 강의로 마무리를 하니까 뭔가 정리가 되는 느낌이죠.”

공연이 성사된 테에는, 그녀와 김숙이 인간적으로 친한 것이 우선이었고 둘 다 예술 방면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다시 힘을 받았다. 한번 해보자 싶은 순간에 그녀의 기획력과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이미 오페라에 이어 발레, 미술, 국악 등 시리즈로 진행할 계획까지 세워두고 있다니 부지런도 하다.

고백하자면 이번 공연에서 그녀가 예술에 대해서만 논했던 것은 아니다. 토크콘서트 이름이 나쁜 여자인 만큼 자신이 왜 나쁜 여자인지 관객에게 먼저 털어놓아야만 했다. 그런데 말이다, 자신의 삶을 원고지에 담는 일이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다. 열 번을 넘게 고쳐도 자꾸 손이 갔다. 글 몇 줄 나오기 위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씹어봐야 했다.

“김성경이 왜 나쁜 여자인지 말하는 부분을 계속 고치면서 나라는 사람에 대해 정리가 되었답니다. SBS 〈뉴스룸〉에서 활동할 무렵, 전 실패라는 걸 겪어보지 못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이혼을 했고 사표를 냈잖아요. 갑자기 나를 감싸던 가정과 회사라는 든든한 울타리가 동시에 사라졌던 거예요. 그제야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게 원리원칙을 지키면서 솔직담백하게 방송했던 저만의 방식이었죠. 종종 까다롭다는 얘기까지 들었으니까요. 그게 지금까지 방송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이고요.”

〈강적들〉에서 동료 진행자들은 그녀를 ‘오래된’ 아나운서 혹은 ‘옛날’ 아나운서라면서 종종 농을 던진다. 얼핏 속상할 것 같은데 외려 그녀는 가볍게 웃어넘긴다. 웬걸, 솔직히 전쟁터 같은 방송가에서 20년 넘게 버티는 자신에게 감동의 박수라고 치고 싶은 심정이다. 아니, 자꾸 도전하고 시도할 수록 무엇인가 감칠맛이 돈다.

신기하게도 올해 들어 그녀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지만 힘은 들지 않았다. 체력은 방전되는데 마음은 가벼운 이상현상이다. 드라마가 설레는 도전이었다면 스스로 기획한 토크콘서트는 짜릿한 쾌감을 안겨주었다. 지금까지의 시간을 뭉뚱그려 간단히 ‘재미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다.

그녀는 오늘도 대중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단히 각인시키는 중이다. 나쁜 여성의 이미지든, 성공에 목마른 드라마 속 배역이든, 껍질은 뭐라도 상관없다. 이 들꽃 같은 여성은, 오늘도 방송가에서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가감 없이 인간 김성경을 펼쳐 보이고 있다. S

메이크업 조원경(엔플로에 02-517-9111) 헤어 희린(엔플로에) 스타일리스트 안수명 도움 주신 곳 이상봉(02-553-3380) 테무박춘무(02-3442-3012)

## 실용과 예술이 그려낸 미학

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과 진지한 고민 끝에 탄생한 작품들은 생활 속에서 은은한 예술의 향기를 전하며 작은 감동을 선사한다. 담백한 듯 시선을 사로잡는 색감에 지혜로움이 깃든 금속과 나무 소재 오브제들이 계절 속으로 들어온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

원초 공예가 박순덕 장인과 컬래버레이션으로 만든 알루미늄 보디의 라운드 화이트 테이블과 얇지만 견고함이 뛰어난 황동 스톨은 서정화 작가 작품. 동 소재로 직선의 예리함과 더불어 정형화되지 않은 라인이 포인트인 녹색 화병, 완만한 곡선의미를 담고 있는 백동 화병 모두 아원공방. 나무의 결은 물론 틈새까지 살려 만들어 자연미가 드러난 바닥의 단풍나무 소재 우드 불과 의자 위 예지 우드 불은 모두 블루레노. 브라스 소재로 직선과 곡선이 주는 아름다움이 그대로 담긴 투웨이 포트는 서정화 작가 작품. 부드러운 라인의 올리브나무 소재 벤치는 블루레노.







강인한 그리고 감성적인 금속의 재구성

새와 나뭇잎을 모티브로 만들었기에 공간 어디에서나 자연의 감성을 전해주는 동 소재 촛대는 아원공방, 티크 원목과 골드 톤의 브라스 조명이 부착되어 있는 1인 책상은 이상민 작가 작품으로 크래프트 브로 컴퍼니, 동으로 만들고 인쪽은 녹색 옷칠로 제작한 불과 베이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한 원통형 불은 모두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속 아트 앤 라이프스타일 갤러리.



결과 향기를 입고 나무의 본색을 살리다

고재와 한지로 제작된 서랍장은 원영 김정순 작가 작품으로 종이나무 갤러리, 붉은 칠로 시선을 끄는 소반은 양병용 작가 작품으로 조은속 아트 앤 라이프스타일, 은행나무와 분채 도장으로 제작한 사각 소반은 하지훈 작가 작품으로 주에디션, 세라믹 화이트 주병은 이민수 작가 작품으로 LVS 크래프트, 겨자 빛 옷칠의 타원형 테이블은 허명욱 작가 작품으로 조은속 아트 앤 라이프스타일 갤러리.





**왼쪽** 마치 완만한 산등성이나 때론 잔잔하게  
 물결치는 파도를 연상시키는 대나무와 금속  
 으로 제작된 나무 벤치는 조병주 작가 작품.  
 다크한 컬러감으로 고풍스러움이 묻어나는  
 로즈우드 원형 통, 단풍나무의 결을 그대로  
 살린 만큼 나무의 깊은 생명이 그대로 느껴지는  
 트레이 가벼운 무게감과 심플한 디자인의 사각  
 나무 도사락 통은 모두 블루레노, 오크 원목으로  
 만들어진 침침산중 겨울은 윤이서 작가 작품  
 으로 주에디션 **오른쪽** 하나의 소반 다리 위로  
 3개의 상판이 함께 어우러진 유니크한 금속  
 소재 소반과 컬러의 예지가 돋보이는 싱글  
 소반은 모두 하지훈 작가 작품, 황동과 백동  
 그리고 나무와 은도금으로 제작된 Watering III  
 포트는 김동현 작가 작품, 빛을 받으면 견고함이  
 그대로 드러나며 유연한 곡선 디자인이 시선을  
 끄는 황동 스티플레이트와 황동에 칠보를 입힌  
 아이보리와 소프트 핑크 접시는 모두  
 김윤진 작가 작품으로 Haam.

도움 주신 곳 블루레노(070-8814-5141),  
 크래프트 브로 컴퍼니(02-790-7446), 조은숙  
 아트 앤 라이프 스타일 갤러리(02-541-8484),  
 종이나무 갤러리(02-766-3397), 주에디션  
 (02-3444-0668), LVS크래프트(02-2243-  
 7475), Haam (www.haam-by.com)



## 삶의 결마다 꽃으로 가득하네

때를 기다려 피운 한 송이의 꽃 속에는 인고의 정신은 물론이요 강인한 생명력이 살아 있다.  
꽃을 건넌 손끝에는 마음을 움직이는 진한 향기가 넘실대며 춤을 춘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산과 구름 그리고 꽃이 만들어낸  
한쪽의 수묵화

따뜻한 봄바람이 가슴에 스미는 이때. 이 땅의 오랜 기억을 품고 더욱 깊어진  
꽃의 향기가 세상 사는 모든 이에게 다가선다.





꽃잎 떨어지는 화폭 안에  
인생의 심표를 찍다

우연처럼 다가온 매화 향기가 강한 영감으로 스며들었고 그러한 가슴속의 감동을 옮겨내기  
위해 젊은 작가는 붓을 들어 매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화폭 안 매화는 멈추지 않을 듯  
영원한 생명력을 뽐내며 보는 이의 가슴을 자극하는 소통의 매개체로 피어난다.  
동양화가 **성영록**



피부 속을 단단히 여며  
삶의 결을 가꾸네

피부 속을 단단히 여며 눈에 보이는 피부 노화 현상을 근본부터 개선시켜주는 여민에센스는  
예로부터 피부를 가꾸기 위해 사용해온 성분인 찔레의 열매, 영실(靈實)의 영특한 효력을  
그대로 담았다. 찔레 열매를 2주간 발효 시켜 만든 고밀착 시트의 여민마스크 역시  
사용 후 느껴지는 탄력감으로 피부 전체를 여며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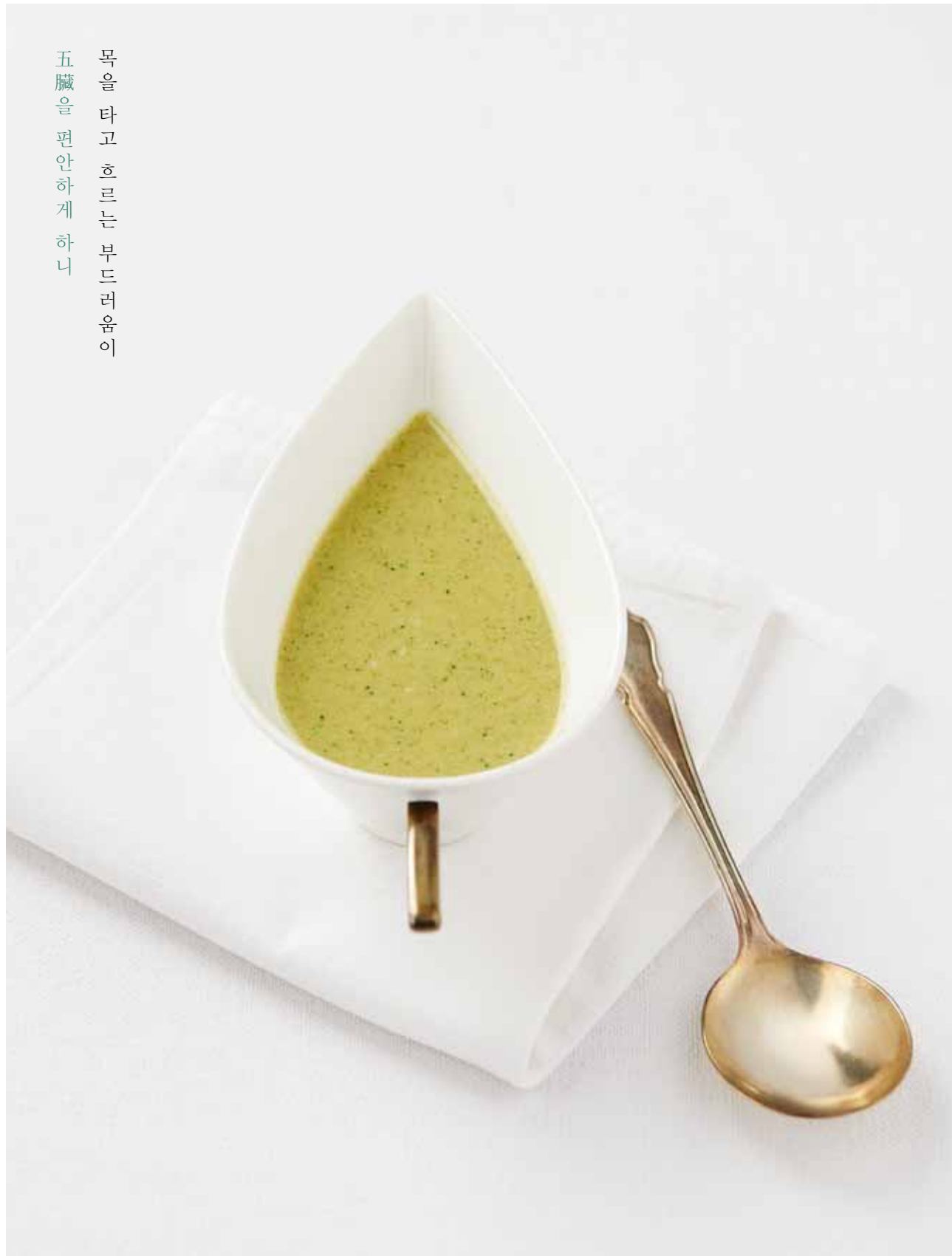
피부 보필, 明潤으로 완성하니  
*Filled with the clear  
energy of bright radiance*

기운을 뚫음은 물론이요 5월의 메마른 바람 앞에서도 언제나  
빛이 나는 외유내강의 피부를 만들어준다. 우리 땅에서 만난 초록빛  
이국 재료들의 소담하지만 강인한 피부 보필에 대하여.

에디터 권지에 사진 문성진 푸드 아티스트 노영희



목을 타고 흐르는 부드러움이  
五臟을 편안하게 하니



먹고 난 후에도  
입속을 감도는 餘韻



어깨까지 들쭉이게 하는  
신맛의 絶頂





생기 넘치는 윤기를  
부여하는 綠色 채소의 힘



피부를 위해 좋은 제품을 아침저녁으로 바르듯, 피부를 위해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은 요즘 같은 계절기에 더욱 절실한 필수 덕목이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맛이 덜할 수도 있겠지만 피부를 위한 효능만큼은 뛰어난 이국적인 재료들은 아보카도,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라임 등으로 모두 녹색 채소 일색이다. 피부에 수분을 채워주는 물론이요 녹색 채소의 섬유소는 체내에서 해독작용을 해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콜레스테롤과 혈압을 낮춰주는 영특함을 품고 있다.

**브로콜리 수프** 비타민E가 풍부해 피부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화를 예방한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 같은 항산화 물질이 많이 함유돼 면역력을 증진시킨다. 푹 삶은 브로콜리를 블렌더로 잘게 갈아준 후 채에 걸러낸 것을 끓인다. 취향에 따라 우유를 넣어 함께 끓여도 좋다.

**아보카도 무스와 새우** 과일 중 가장 영양가가 높아 '숲속의 버터'라는 별명이 붙은 아보카도는 11종의 비타민, 14종의 미네랄, 16%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으갠 아보카도에 생크림을 섞어 만든 아보카도 무스는 익힌 새우와 함께 먹는 것은 물론 빵에 잼처럼 발라 먹어도 맛있다.

**라임 민트 소다** 비타민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피부에 활력을 주고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 커팅한 라임과 민트를 컵에 듬뿍 넣은 후 시중에 파는 탄산수를 넣어주면 된다.

**홀랜다이즈 소스를 곁들인 아스파라거스** 비타민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노화 방지는 물론 피부를 맑고 투명하며 탄력 있게 가꾸어준다. 살짝 데친 아스파라거스는 그냥 먹어도 훌륭한 맛을 자랑하지만 마요네즈나 홀랜다이즈 소스(달걀노른자와 녹인 버터, 레몬즙 약간)와도 잘 어울린다. S

**Broccoli Soup** Broccoli is rich in Vitamin E, so it revitalizes your skin to help you defy aging. It is also filled with antioxidants such as Vitamin A and beta carotene to improve your immune system. Grind fully cooked broccoli in a blender, sieve it, and then boil it. You can also add milk to it to taste.

**Avocado Mousse and Shrimp** Avocado is known as the 'butter of the forest' because it is the most nutritious fruit. It contains 11 kinds of vitamins, 14 kinds of minerals, and 16% fat. As it is great for making your skin radiant, you can slice it thinly and use it as a facial mask. Avocado mousse, made by mixing mashed avocado with whipped cream, is great with cooked shrimp or bread as a spread.

**Lime Mint Soda** Lime activates your metabolism to help you actively burn fat. It is rich in vitamins that revitalize your skin and help you fight aging. Fill a cup with chopped lime and mint, and add carbonated water to make the soda.

**Asparagus with Hollandaise Sauce** Rich in Vitamin A, asparagus is great for fighting aging and for clarifying your skin and making it elastic. Lightly cooked asparagus is tasty all by itself, but it also tastes great with mayonnaise or Hollandaise sauce (egg yolks and melted butter with a hint of lemon juice).



## 지혜로운 비책으로 되찾은 맑고 투명한 기운

타고난 미인보다 가꾸는 미인이 더 아름다운 것처럼, 피부를 위해 얼마나 지혜롭게 노력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움의 승패가 나뉜다. 설화수의 비책으로 탄생한 당당한 제품으로 이제 피부에 맑고 생기 있는 기운을 불어넣을 때다.

에디터 권지에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콰르디아



꽃잎에 물결이 스며드는 듯한  
도자 그릇은 신희창 작가 작품.

###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 *Perfecting Cushion Limited Edition*

세상에 빛을 본 지 2년, 밀리언셀러라는 열렬한 지지와 함께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출시되는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화중왕'이라 불리는 모란이 살포시 담겨 있다. 전통 채색화가 강은명 작가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활짝 핀 모란처럼 기품과 윤기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행인한방보습제로 메마를 새 없는 촉촉함을, 높은 피부 밀착력으로 완벽하게 주름을 커버하며 스스로 빛이 나는 얼굴을 만들어준다.

**How to Use** 기초화장 후 선크림 또는 파운데이션 단계에서 사용. 퍼프에 적당량을 취해 얼굴에 가볍게 두드리듯 펴 비른다. 오후 중 선블록이 필요하거나 수정 메이크업이 필요할 때 수시로 덧발라 준다.

자 정 수  
*Snowise EX Whitening Water*

단순히 피부 결을 정돈시키는 토너가 아니다. 미백 기능성 인증을 받은 백화사설초 추출물이 들어간 제품으로 색소침착을 방지해 피부 투영도를 업그레이드시킨다. 에센셜 젤 타입으로 끈적임 없이 피부에 흡수되며, 수분 공급은 물론 다음 단계의 미백 성분 흡수율을 최적화하는 부스팅 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How to Use** 아침, 저녁 윤조에센스 사용 후 깨끗한 손바닥에 500원짜리 동전 크기 정도를 덜어낸다. 양 손바닥을 살짝 비벼 내용물을 나눈 후, 얼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부드럽게 두드리듯 퍼 발라준다.



자 정 수 액  
*Snowise EX Whitening Fluid*

에센스 타입의 미백 로션 안에는 피부 밸런스를 잡아주는 한방성분인 작약이 들어 있는데, 이는 피부 진정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 백삼다당체가 생기를 부여하여 맑고 기운 넘치는 피부로 가꿔주며 미백 기능성 인증의 백화 사설초는 열에 의해 착색해진 안색을 맑게 해준다. **How to Use** 아침, 저녁 피부 손질 시 자정수 사용 후 손바닥에 적당량을 펴평하여 피부 결을 따라 손끝으로 퍼 바른다.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얼굴을 감싼 후,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듯 흡수시킨다.



마치 한지를 깔아놓은 듯한 새로운 질감의 유리 받침은 박선민 작가 작품.

상백크림  
Snowise EX UV Protection Cream

점차 강력해지는 자외선에 즉각적인 대응은 물론 예방까지 해주는 미백·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이다. 세계 최초로 한방 미백 성분인 백삼사포닌과 색소침착을 케어해주는 백화사설초가 피부 안팎으로 효능을 발휘.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낮 시간에도 효능을 느낄 수 있는 한방 데이크림이다.

**How to Use** 아침 기초 손질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한다. 면적이 넓은 양 볼부터 시작하여 턱, 이마 순으로, 힘이 약한 뺨뼈손가락을 이용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부드럽게 펴 바른다.



은은한 색감의 유리 받침은 박선민 작가 작품.



**퍼펙팅쿠션** 잡티 등을 커버하는 한 가지 역할의 파운데이션은 잊어야 할 때다. 퍼펙팅쿠션은 자연스러운 커버는 물론, 행인한방보습제를 함유해 스킨케어의 촉촉함까지 담고 있다. 또한 뭉침 현상 없이 주름 사이사이 균일하고 섬세하게 발리므로, 이름 그대로 완벽한 스킨 표현을 완성한다. 화사하고 맑은 광채 안색을 만들어주는 퍼펙팅쿠션 브라이팅과 모란꽃이 패키지 위로 활짝 핀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모두 이상적인 피부 표현을 위한 절대 미감의 제품들이다.

**자정 라인** 맑은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기미나 잡티, 어두운 안색 등은 자외선이나 호르몬 불균형, 지나친 스트레스 등 외부 요소로 인해 피부가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증거다. 자정 라인은 피부 정확 작용은 물론 미백과 진정 작용을 하는 농축 한방 성분(백삼사포닌, 백화사설초, 백삼다당체)이 피부 속 숨겨진 곳까지 깊고 섬세하게 스며들어 눈에 보이는 미백 효과를 과학적으로 실현시킨다. S

**Perfecting Cushion** Perfecting Cushion provides natural coverage and contains apricot seed herbal moisturizers for hydration. It also applies evenly and delicately to fill in wrinkles without caking. From Perfecting Cushion Brightening for a radiant and clear complexion to Perfecting Cushion Limited Edition with the special package of peony, all of these products are the absolutely aesthetic products for the ideal skin.

**Snowise EX Whitening Line** Age spots, blemishes, and dull complexion prove that your skin has been stressed by external aggressors such as UV rays, hormone imbalance, and excess stress. Snowise EX Whitening Line scientifically realizes the whitening effect that you can see as it not only purifies the skin but also delivers the Korean herbal medicinal concentrates for whitening and soothing (white ginseng saponin, White Cloud Grass™, white ginseng polysaccharides) to every layer of the skin.



# 알뜰도록, 샘나도록 아름다운 예술의 섬

## *Naoshima*

나 오 시 마

에디터 권지에 사진 베네세 하우스, 화인존, 해강

나오시마는 살아 있는 생명체로 늘 색다른 진화를 꿈꾸고 있다. 예술이라는 현판을 걸고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섬 전체를 칠하고, 고치고, 뜯고, 세운다. 전 세계 예술 애호가들과 여행자들의 필수 여행지로 선택된 이 섬을 걷다 보면 예술이 그냥 이유 없이 내게로 다가온다.







빛과 그림자가 만드는 건축의 선과 면을 중시하는 안도 다다오의 건축의 향연이 열린다.  
베네세 하우스는 객실이 6개밖에 안 되는, 가장 예술적인 잠자리 공간을 제공한다.

오카야마 현과 가가와 현 사이에 위치한, 세토 내해에 떠 있는 작은 섬인 나오시마. 지금은 예술의 섬으로서 이곳을 향한 사랑이 전 세계에 넘쳐흐르지만 한때는 금속제련 회사가 배출한 유독가스로 수목의 대부분이 시들어 죽어가는 섬이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지. 버려진 섬을 자연과 예술이 함께하는 섬으로 되살리겠다는 베네세 그룹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의 웅대하고 용감한 구상이 그 강렬한 취지에 공감한 건축가 안도 다다오 등 여러 예술가들에 의해 완벽하게 실현되었다.

1992년 건축가 안도 다다오는 '베네세 하우스 뮤지엄'을 완공한다. '뮤지엄'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숙박시설을 곁들인 체류형 미술관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절경을 가진 곳 위에 위치해 있다. 밖으로 향해 크게 열린 구조로 실내에서도 항상 외부의 자연을 느낄 수 있으며, '공간만을 감지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건축'이 되기를 희망했던 안도 다다오의 소망대로 미술관의 안과 밖을 오가며 예술과 풍경이 맺는 관계를 즐길 수 있다. 뮤지엄보다 더 높은 언덕 위에 위치해 있어 모노

Naoshima is a small island floating on Seto Inland Sea between Okayama Prefecture and Kagawa Prefecture. It is currently an artistic island that is loved by the world, but can you believe that it used to be an island of death, where most of the trees and plants were dying because of the toxic gas from a metal smelting factory? The magnificent and brave plan of Chairman Fukutake Soichiro of Benesse Group to revive this abandoned island into an island of nature and art has been perfectly realized by the inspired Architect Ando Tadao and a number of artists.

In 1992, Ando Tadao completed Benesse House Museum. The museum is a rare kind of art museum with accommodations, and is located on top of a cape, with beautiful views of the ocean on three sides. Its open structure always brings nature into the interior space, and as Ando Tadao wanted to create "an invisible architecture with nothing but space," you can enjoy the relationship

레일을 타고 이동해야 하는 숙박 전용동 '오벌(1995년 완공)'은 타원형의 연못을 가운데에 두고 객실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다. 객실 지붕 위의 녹음은 짙고 인공 캐스캐이드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으로, 밤에는 연못이 빛을 반사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환상적인 시공간을 선물한다.

2004년 '나오시마 아트 프로젝트'의 분기점을 제시했다고 할 수 있는 '지추미술관'을 개관한다. 클로드 모네, 월터 드 마리아, 제임스 터렐 단 3명의 작품만을 항구적으로 전시하는 대담성과 함께 공간 전체를 땅속에 묻은 콘셉트는 단연 화제가 되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2010년에는 이우환 미술관을 개관한다. 산기슭 안쪽의 대지와 암석을 도려내어 얻어지는 어둠의 공간은 이우환의 바람대로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안도 다다오가 설계한 건축 이외에도 여러 예술가들의 협업이 나오시마를 예술의 섬으로 만들었다. 예술가들은 직접 섬을 방문해 '장소 특정 미술(Site-specific Work)'의 일환으로 나오시마에서만 볼 수 있

between art and the landscape in and outside the museum. Oval (completed in 1995), the hotel building located on a hill higher than where the museum is nestled, and connected to the museum with a monorail, has guestrooms encasing an oval-shaped pond at the center. There are luxurious greens on the rooftop, and you constantly hear the sound of water from the artificial cascade. At night, the pond reflects light and presents a truly fantastic view that you cannot experience anywhere else.

In 2004, Chichu Art Museum opened and marked a new turning point for the Naoshima Art Project. It attracted attention with its bold exhibition of the works of no less than Claude Monet, Walter De Maria, and James Turrell, and the idea of burying the entire space underground. It did not stop there; in 2010, it opened Lee Ufan Museum. The space of darkness acquired by cutting the land and rocks on the inside of the hill created a quiet site for meditation,





세상이 점으로 보이게 되면서 만들어진 쿠시마 아요이의 빨간 호박 작품은 나오시마를 대표하는 아트 작품이다. 작품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보는 이와의 소통을 꾀한다.

는 작품을 만들어 여러 곳에 배치하였다. 더불어 '이에 프로젝트'는 혼 무라 지구의 오래된 민가를 예술 작품으로 탈바꿈하는 시도로 LED로 발광하는 숫자판인 카운터를 물속에 배치한 작품을 선보인 미야지마 다츠오의 <카도야>, 신사 아래를 파서 만든 지하 석실에 유리 계단을 설치하여 지상에 있는 본전을 잇는 작품인 스키모토 히로시의 <고오 진자>, 목욕과 함께 현대미술 감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오오타케 신로의 <아이러브유 I♡湯>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나오시마 이외에도 세토 내해의 쇠락한 다른 섬까지 확장된 아트 프로젝트는 2010년 세토 내해의 7개 섬과 다카마즈 항을 무대로 세토 우치 국제예술제 개최로 이어졌다. 3년마다 개최될 예정으로 기획된 예술제는 4개월 동안 93만800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각각의 섬들이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 개성을 살려 서로 연대하고 제휴해나가길 기대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후쿠타케 소이치로 회장의 바람 덕분에, '나오시마의 기적'은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S

just as Lee Ufan had desired.

In addition to what Ando Tadao designed, the collaboration of many artists has made Naoshima an island of art. The artists have visited the island to create and arrange a "site-specific work" that can be found only in Naoshima.

The art project expanded to other abandoned islands in Seto Inland Sea besides Naoshima; in 2010, Setouchi International Art Festival was held on seven islands in Seto Inland Sea and at the Port of Takamatsu.

As Chairman Fukutake Soichiro is determined to support the art project so that the islands could work together to develop their original history, culture, and personality, "The Miracle of Naoshima" is still ongo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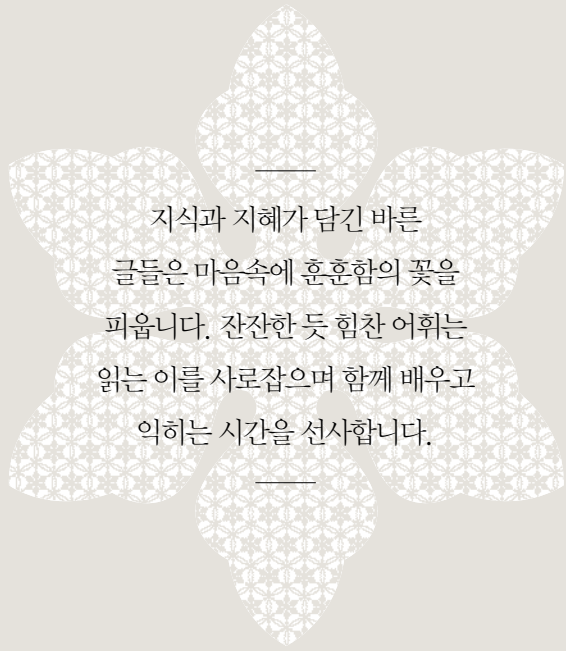
雪花秀

Sulwhasoo



##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을 가꾸어 온종일 화사한 피부빛을 지니다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피부 본연의 맑은 안색을 살릴 때 피부는 더욱 환하게 빛이 납니다  
피부를 맑게 정화하고 화사한 피부빛을 선사하는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  
목련 추출물과 진주모 콤플렉스가 함유되어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맑고 화사한 피부빛을 완성합니다  
이제, 설화수 퍼펙팅쿠션 브라이트닝으로 화사함의 격을 높이세요



지식과 지혜가 담긴 바른  
글들은 마음속에 훈훈함의 꽃을  
피웁니다. 잔잔한 듯 힘찬 어휘는  
읽는 이를 사로잡으며 함께 배우고  
익히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위  
서  
다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궁중음식연구원 한복려 원장

## 한 그릇 한 상에 선조의 지혜를 담다

궁중음식연구원 한복려 원장

모든 음식에는 삶이 녹아들어 있다. 밥 한 그릇에도 자연의 섭리, 사람의 정성과 노력, 섭생의 철학이 담겨 있다. 중요무형문화재로서 조선왕조 궁중음식의 맥을 이어가는 한복려 원장을 찾아 한식에 담긴 철학과 옛사람들의 지혜를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은숙

우리 민족 역사상 가장 화려한 음식문화를 이룩한 조선시대의 궁중음식은 각 지역에서 나는 진상품을 재료로, 조리 기술이 뛰어난 주방 상궁이 온 마음을 다해 만들었다. 궁중음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늘 먹는 음식과 다를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도 않았다. 다만 궁중음식이 특별한 것은 궁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오랜 세월 대를 이어 전승돼온 맛과 지혜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재 궁중음식의 명맥은 궁중음식 연구가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인 한복려 원장의 손에서 재현되고 있다. 그는 궁중음식으로 유명했던 고 황혜성 선생의 맏딸로 1970년대부터 어머니로부터 조선왕조 궁중음식을 전수받았다. 2004년 드라마 <대장금>에서 궁중음식 차림상을 주도했으며 정상급 외교행사의 자문은 물론 한식 콘텐츠 기획과 개발, 전통 식문화 관련 행사 및 전수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지금은 누구나 궁중음식을 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각 지역의 질 좋은 향토 음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조선시대의 왕보다도 더 귀하고 싱싱한 재료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요. 전통음식, 궁중음식이라고 하면 귀한 음식이라며 쉽게 근접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사실은 좋은 식재료로 오랫동안 기술을 익힌 사람이 먹을 사람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을, 먹는 사람 또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맛을 음미하면 그것이 바로

귀한 음식입니다.”

창경궁 북쪽 담장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한옥 두 채가 이어진 ‘궁중음식연구원’을 만날 수 있다. 이곳은 한복려 원장의 주거 공간이자 궁중음식의 연구와 전수가 이뤄지는 곳, 한식의 가치를 새롭게 되살리는 담론이 논의되는 곳이다. 창경궁 담장이 궁중음식연구원의 담장이 되는 이곳에서 한식에 대한 열정이 새롭게 피어나고 무르익어 간다.

한 그릇 안에 우주의 섭리가 들어 있다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성에 따라 영양을 취하는 방법을 선택하죠. 이것이 민족음식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뚜렷한 사계절과 산천과 바다로 이루어져 있어 다양한 제철 재료를 골고루 써야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음양오행의 철학이 담겨 있죠. 질서 없이 뒤섞여 있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한 그릇 안에 우주의 원리가 담겨 섭취할 수 있게 만들어놓은 것이 한식입니다.”

한복려 원장은 한식은 다섯 가지 색 안에 모든 식재료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한다. 대부분의 음식이 오방색, 즉 적색, 청색, 황색, 백색, 흑색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오행의 색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은 화재, 청은 목초, 황은 토사, 백은 금술, 흑은 수수를 의미한





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구절판, 신선로, 잡채, 산적, 비빔밥 등이 있고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맛의 조화를 중요시했다. 한식 특유의 '고명'은 음양오행설의 다섯 가지를 충실하게 보여준다. 고명은 음식의 모양과 빛깔을 돋보이게 하고 음식의 맛을 더하기 위하여 음식 위에 얹거나 뿌리는 것을 통틀어 이른다. 오방색을 골고루 써서 음식을 만들지만 그것이 안 되면 고명을 이용해 색과 맛을 채워 넣는데, 한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소중한 재료다.

농경 사회였던 우리나라에는 예로부터 전해지는 세시풍속(歲時風俗)이 있다. 1년을 24개의 절기와 명절로 구분 지어 각 가정이나 마을에서 해당하는 날 먹는 음식과 놀이 등이 달랐다. 설과 추석 외에도 대표적인 세시로는 정월대보름, 삼짇날, 한식, 단오, 칠석 등이 있으며 풍년을 기원하고 조상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거나, 개인과 가족 공동체의 건강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제철 재료로 고유의 음식을 만들어 먹었다. 음력 4월 8일인 초파일은 석가탄신일로 느타리, 볶은 콩, 나물, 삶은 미나리 등을 먹었고, 음력 5월 5일 단오에는 다가울 여름의 질병과 재앙을 막기 위해 의례적인 행위를 했다. 여성들은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볶고 푸른 새우를 입고 창포 뿌리를 깍아 붉게 물들인 비녀를 꽂아 몸단장을 했다. 남자들은 창포 뿌리를 허리춤에 차고 다니며 액을 물리쳤다. 사람들은 더위에 대비해 부채를 선물했다. 단오날 아침에는 썩을 달여 마시고 수리취떡을 만들어 먹었다. 이외에도 꿀과 청매실 그을린 것에 여러 한약재를 섞어 만든 제호탕과 준치국, 도미찜, 앵두 화채 등을 먹었다.

"5~6월에는 가지, 오이 등 열매채소가 나오고 맛이 일품인 준치라는 생선이 제철이에요. 예로부터 선조들은 그 시기에 나오는 재료를 가지고 최대한 맛을 냈죠. 곡식으로는 보리와 밀을 수확하는데 보리는 보리밥을 해먹거나 음료의 건더기로 사용했어요. 찬 성질을 가진 밀은 더운 여름 국수, 전병 등을 만들어 몸을 시원하게 하면서도 입에 닿을 때 청량감을 주는 음식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이날 한복려 원장은 5~6월에 만들어 먹으면 좋을 전통 음식으로 고유한 오방색이 아름답게 담긴 구절판과 시원한 장면을 만들어주었다. 얇게 부친 밀전병에 가지런히 곱게 채 썰어 간을 한 갖가지 재료를 올리고 겨자 장을 곁들여 먹는 구절판은 맛과 정성이 훌륭한 음식이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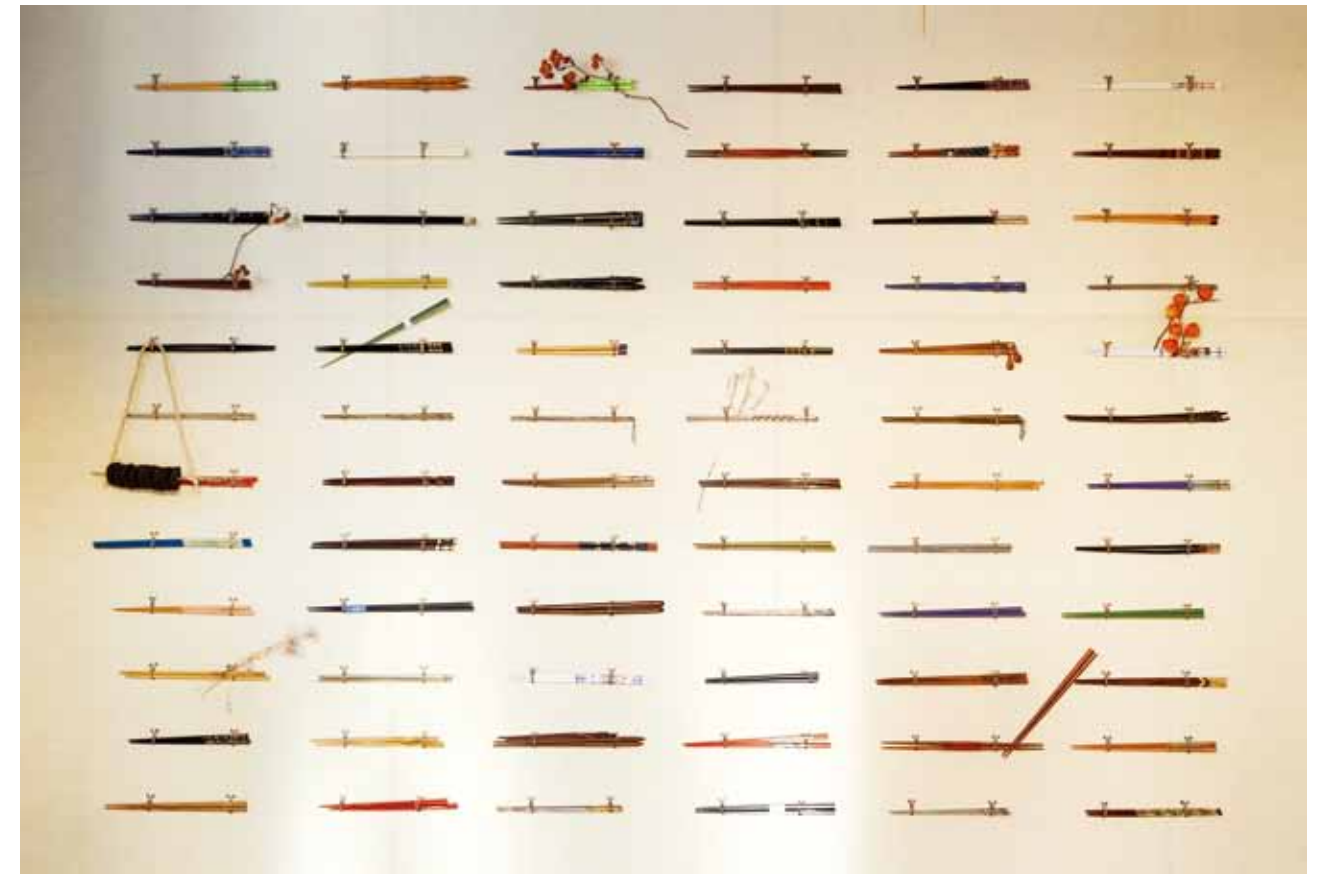
다. 창면(昌麵)은 '청면' '작면'이라고도 하며, 녹두 녹말을 이용하여 얇게 만든 면을 익혀 오미자 국물에 띄워 마시는 전통 음료이다. 새콤달콤한 오미자 국물에 담긴 보들보들하고 탱탱한 면이 미각을 자극하는데 먹어보기 어려운 귀한 음료였다.

### 배려하고 존중하는 한식 밥상 문화

"건강한 재료를 선사해준 자연과, 식탁에 음식을 올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썼을 분들에게 감사를 느꼈으면 좋겠어요. 요즘은 그럴 기회조차 없는 것 같아요. 식생활에서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느냐가 성품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먹는 것을 우습게 여기며 대충 때우는 표현은 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한 끼를 먹더라도 제대로 갖춰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가족을 나타내는 말로 '식구(食口)'라는 표현을 했다. 우리 조상들은 찌개, 반찬 등을 식구끼리 나눠 먹으며 서로 정을 나눴다. 더불어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법을 밥상머리에서 체득





했다. 한복려 원장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누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나누지 못하는 요즘 밥상을 걱정했다. 시대가 달라짐에 따라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음식을 만들고, 먹은 그릇을 설거지하는 등 시대에 맞는 밥상 교육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가족이 함께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만들며 화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한다.

### 늘 먹는 한식, 음식 그 이상의 의미

한식은 우리가 늘 먹는 음식이기에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한식은 맛뿐만 아니라 시각, 후각, 청각, 촉각 등 오감이 고루 어우러지며, 섭생이라는 관점에서 먹는 사람의 건강을 생각한다. 자연의 섭리를 따르며 계절 식재료를 사용해 몸의 조화를 이뤄내는 든든한 자랑분이다. 한복려 원장은 한 그릇이라도 제대로 된 그릇에 단정하고 깔끔하게 담아내어 먹기를 권한다.

“음식을 맛있고 정성스럽게 만드는 것만큼 모자람 없이 정갈하게 차

려내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먹더라도 내 가족이 먹더라도 마찬가지지요. 음식에 대한 기본을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플라스틱 그릇에 음식을 담아 주거나, 비닐이나 일회용 스티로폼 그릇에 담긴 길거리 음식을 그대로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안타깝워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먹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하거나, 번거롭다는 이유로 무시되고, 어른들이 제대로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는 현실이 유감스러울 때가 있다. 음식에 대해 너무 까다로울 필요는 없지만 너무 너그러운 것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는 생각한다.

“요즘 TV에 나오는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보면 음식을 가지고 경쟁심을 부추기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일시적인 감동을 위해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보이게 만들고요. 그런 것에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지요. 옛 어른들이 음식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먹었으며, 우리 전통 음식 맛이 어떤가를 전달해주는 기회도 만들어준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문화로서 음식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거든요. 글과 그림, 음

려까지 모든 예술과 접목이 가능해요.”

한복려 원장은 그래도 최근 뜻있는 젊은 세대들이 할머니, 어머니가 만들던 전통장, 전통술 등을 이어받아 되살려나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젊은 인재들이 한식의 발전을 돕고 있는 것이 대견하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닿기를 바란다.

“무형문화재이면서 조선왕조 궁중음식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를 전수하는 것은 생이 다할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옛 궁궐의 부엌인 소주방이 복원되어 5월 초 개관을 앞두고 있어요. 100여 년 만에 본래의 모습을 되찾은 경복궁 소주방의 내부를 재현하고 궁중잔치 등 궁중음식 프로그램을 마련해 대중들에 선보일 준비를 하는 중입니다.”

한국의 음식문화가 변함없이 이어지고 발전되길 바라는 한복려 원장의 마음은 한결같다. 그는 여전히 한식 콘텐츠를 담은 박물관을 꿈꾸고 있다. 오늘 저녁엔 한식 밥상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를 더듬어보면 어떨까. 우리 식문화에 담긴 가치를 되새겨보고 현재의 한식 밥상을 이어갈 일이다. S

## 머리 위에 깃든 섬세한 꾸밈

옛 여인의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해주었던 장신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특히 머리 장신구인 비녀와 뒤꽂이는 부와 신분을 드러내는 장신구인 동시에 장인의 정교한 솜씨가 녹아들어 있는 예술품이다.

에디터 윤연숙 사진 이종근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디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미적 정서가 발달하였다. 장신구의 전통 문양과 조형미를 살펴보면 아름다움을 추구했던 우리 민족의 감성을 살펴볼 수 있다. 옛 여인들은 시대의 유행과 개인의 취향에 따라 장신구를 선택해 단아하고 기품 있는 아름다움을 완성했다. 평상시에는 간단한 장신구로 치장했으나 연회나 혼례 등 경사가 있을 때는 더욱 화려하고 곱게 단장하였다.

조선시대는 여인의 장신구 중에서도 유독 머리 장신구가 발달했던 시기다. 유교사상으로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은 발달하지 못한 반면 신분을 나타내는 노리개와 머리 장식이 널리 애용되며 여인들이 미를 가꾸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특히 머리 장식은 단순히 머리를 꾸미는 장신구의 성격을 넘어 상징성, 실용성, 예술성을 갖춰 시대를 반영하는 미의 소산이자 여인들이 자신의 미를 표현하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머리 장신구는 머리 모양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장신구로는 비녀, 뒤꽂이 등이 있는데 비녀는 조선 여인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다채로운 세공 기법을 보여준다. 장식의 역할 외에 본래 머리를 수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으므로, 전 계층이 필수로 착용하는 장신구였지만 신분과 재력에 따라 모양과 재료는 다르게 사용하였다.

### 혼례를 치른 여인의 머리 단장, 비녀

혼인 여부에 따라 머리 모양새에 차이를 두었던 조선시대, 비녀는 기혼 여인의 쪽진 머리에 꽂아 풀리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도구였다. 머리에 밀 기름을 바르고 참빗으로 눌러 빗어 한 올의 흐트러짐도 없이 곱게 뒤로 모은 뒤, 총총 땅아 쪽을 만들어 꽂는 비녀는 여인들의 머리를 단정하게 마무리해주는 장식이었다. 재질과 형태, 문양, 크기에 따라 이름을 달리 불렀고 신분과 용도, 계절 등에 구분을 두었다. 옷의 색깔에 따라 색채와 의장을 조화시키기도 했다.

비녀는 길이에 따라 33~43cm인 여성용 긴 비녀와 약 10cm 정도인 남성용 짧은 비녀가 있었다. 이후 정조의 부녀발제 개혁으로 쪽머리가 일반화되면서 비녀는 여성의 전유물이 되었다. 그리하여 머리를 수발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 점차 장식품으로도 쓰이게 되었고, 나중에는 재산 축적의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비녀는 한자로 '잡髻'이라 하는데 비녀의 머리 모양에 따라 용잠, 봉잠, 죽잠, 목련잠, 매죽잠, 죽절잠, 모란잠, 국화잠 등으로 나뉜다. 용잠은 비녀 머리에 용을 조각한 것으로 본래 왕실에서만 사용하던 것이었다가 후에 일반 가정에서도 혼인하는 날 하루만은 허용되어 혼례식에는



붉은빛의 옥떨잠과 은 소재의 산호 뒤꽂이는 아원공방. 실크사로 감싼 원형판 위에 원석을 소복하게 구성한 화려한 비녀. 호두 모양 나무 옥비녀는 조은희 작가 작품으로 량량 은 소재 산호비녀는 아원공방. 꽃 모티브의 뒤꽂이는 흥대비녀.





진주빛 뒤꽂이는 아원공방. 그린 색상의 합은 이형만 작가의 작품으로 KCDF 갤러리. 상감기법으로 사군자를 새겨 넣은 단풍나무 빗은 명인의 일.

으레 용잠을 사용하였다. 값진 재료로 만든 혼례용 비녀는 무척 귀한 물건이라 여겼으며 예단으로 보내기도 했다. 비녀의 재료는 금, 은, 백동, 유(玉), 진주, 영락, 옥, 비취, 산호, 목, 죽, 각, 골 등이 사용되었다. 비녀는 신분의 차이를 나타내는 도구이기도 했다. 양반들은 금, 은, 주, 옥으로 된 것을, 중인 이하 서민들은 목(나무), 각(뿔), 골(뼈) 등으로 된 비녀를 사용했다. 당시 머리는 신체 중 제일 윗부분으로 어느 부분보다 신성시되었기 때문에 신분이 높을수록 비녀는 더욱 화려했다. 또 비녀는 주로 어머니가 딸이나 며느리에게 대대로 물려주던 가보家寶로 여겨진 귀한 장식품이었다. 그 시대 장인들이 온갖 정성을 들여 정교한 솜씨로 재료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구사한 비녀는 우리 선조의 우수한 실력과 미적 감각을 발견할 수 있는 예술품이다.

#### 실용적인 아름다움의 지혜, 뒤꽂이

뒤꽂이는 조선시대 여인들이 쪽진 머리 뒤에 꽂았던 장신구로, 비녀와 조화를 이루며 여인들의 머리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머리에 꽂았을 때 보이는 부분을 '장식부'라고 하고 꽂히는 부분을 '침부'라고 하는데 장식부의 문양에 따라 명칭을 다르게 불렀다. 뒤꽂이 역시 크기와 소재로 사용하는 사람의 신분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비녀와 마찬가지로 가체加髻가 금지되면서 더욱 발달했다. 금, 은, 동, 산호, 비취, 칠보, 진주 등의 여러 가지 보석을 재료로 하여 과판(국화 모양), 연봉(연꽃 봉오리)를 본떠 만든 것과 매화, 화염, 나비, 천도, 봉 등의 모양으로 화려하게 만들었다. 작은 보석이 촘촘히 박힌 뒤꽂이는 여인의 검고 윤이 나는 머리를 더욱 아름답게 장식했다.

뒤꽂이는 단순히 장신구로 사용하던 일반 뒤꽂이와 장식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것으로 나뉜다. 장식과 실용성을 겸비한 귀이개 뒤꽂이와 빗치개 뒤꽂이는 서민 부녀자들에게까지 널리 사용되었다. 귀이개 뒤꽂이는 귀지를 파내는 도구의 역할도 했으며 따로 바늘처럼 끝이 뾰족한 꽃이가 달려 있어 체했을 때 손끝을 따는 용도에 사용하기도 했다.

빗치개 뒤꽂이는 머리를 빗고 가르마를 타는 데 쓰는 용도와 장식성을 더한 것으로, 귀이개 뒤꽂이와 빗치개 뒤꽂이는 실용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한 선조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장신구들이다.

#### 전통 소재의 아름다움 그리고 현대적 실용성과 세련미

전통 장신구가 가진 속성을 재해석하는 과정은 공예 작가나 공예 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로운 경험을 선사한다. 한국적 미와 정서가 담긴 머리 장신구들은 지금 보아도 여전히 아름답고 기교면에서 훌륭하며 예술성도 뛰어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전통 작품 그대로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통 소재를 활용하거나 전통 공예 기법을 활용한 새로운 디자인, 현대적인 실용성과 미감을 더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그래야 현대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예품으로서 맥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전통 소재의 아름다움을 현대적 실용성과 세련미와 어우러지게 하는 작업이 금속공예나 칠보공예 작가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비상하려는 학鶴과 피어나는 꽃봉오리를 조화시킨 비녀, 전통 컬러와 문양을 응용해 원목 위에 화려한 원석으로 소복하게 장식한 비녀, 자개와 은으로 활짝 핀 꽃을 형상화한 뒤꽂이 등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를 새롭게 재조명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디자인은 비녀와 뒤꽂이를 형상화했지만 쓰임새를 브로치 등으로 활용하는 현대적인 변형을 거친 작품들도 있다. 이 작품들은 전통적인 것은 무겁고 고루하다는 편견을 깨고, 작가의 독창적인 감성을 담아 모던하게 재해석되어 현재의 삶에서도 공존하고 있다.

옛것의 가치는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했다. 옛 여인의 머리 단장을 책임졌던 비녀와 뒤꽂이의 가치도 오래도록 이어져야 할 것으로, 잊지 말고 가까이 들여다보아야 할 일이다. S



자보도브스키와 비스코이 섬 사이에 있는 빙하 위의 턱코펭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 2009.



플렛 섬과 사우스서틀랜드 제도에 있는 빙산. 남극 반도, 2005.

## 슬픈 지구 속 야생의 삶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사진은 자연에 대한 장엄한 기록인 동시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말없이 명징한 메시지는 자연과 인간의 삶을 숭고히 마주하게 한다.

에디터 윤연숙 글 이선영(미술평론가) 도움 주신 곳 온지프렌즈

###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의 대서사시

지난해 가을 오픈하여 올해 초 봄까지 서울에서 열린 세바스티앙 살가두의 사진전 <GENESIS>는 다큐멘터리 사진으로 일가를 이룬 세계적인 작가의 작품을 245점이나 볼 수 있는 대규모 전시였다. '제네시스'라는 전시 제목처럼 작가는 2004년부터 8년 동안 세계 120여 나라를 다니면서 지구에서 발생하는 경이로운 장면들을 사진으로 기록해 왔다. 전시장은 장대한 시공간이 펼쳐지는 장이다. 자연과 인간 그리고 문화가 들어 있는 그의 작품은 대서사시처럼 굵아치면서 깊은 여운을 남긴다. 건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나 관념에 매몰되어가는 현대 예술에서 감동이라는 정서는 희귀해졌지만, 감동이란 인간이 예술에서 기대하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 아닐까. 살가두는 그러한 대중의 욕망을

대가의 솜씨로 충족시켜주는 사진가다. <GENESIS>는 잡다한 인공의 기표에 둘러싸인 현대인에게 원초적인 무엇을 제공하지만, 이 원초적인 것이 곧 사라질 수 있다는 메시지 또한 포함한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지만, 사진가의 여정은 계속되는 시작을 통해 끝을 지연시키려 한다. 또한 <GENESIS>는 사진으로 포착된 장면이 지금 막 발생하는 사건과도 같은 강도를 가지길 기대한다. 작가 스스로 감탄한 광경들을 있는 그대로 관람객에게 전달하려는 것이다. 그의 사진에 담긴 다양한 원시부족들의 삶, 그것이 속한 자연 생태계와 운명을 함께하는 다종다양한 동물들, 그 모든 것들의 무대인 대자연은 탐험가이자 생태학자, 인류학자이자 역사가의 눈으로 포착된다. 많은 작품에 감도는 신비한 기운들은 그가 지구라는 신을 믿는 범신론자가 아닌 가하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photo by Sebastião Salgado / Amazonas Images



©photo by Sebastião Salgado / Amazonas Images



©photo by Sebastião Salgado / Amazonas Images

### 자연 그리고 자연 속에 생존하는 인간의 모습

칸트는 <아름다움과 숭고함의 감정에 관한 고찰>에서 아름다움에 비해 단순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감동을 주는 숭고함의 미학적 성격을 논한 바 있다. 살가두의 사진이 곧잘 포착하는 “아주 높거나 아주 깊은 것”들은 “우주의 무한한 크기에 대한 수학적 표상”이며, 그것을 포착할 수 있는 “영혼의 무한성(칸트)”을 암시한다는 점에서 숭고하다. 이 숭고한 풍경들에 비한다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과 그것을 지배하는 상식들은 하찮아 보인다. 한편으로 뿌리 뽑혀 떠도는 문명이 본질적으로는 거대한 시공의 좌표에 속해 있음이 경이롭다. 깊은 계곡 속에 우뚝 선 그랜드캐니언은 남성적이며, 바람이 접어놓은 모래 표면들의 섬세한 선은 여성적이고, 허물어지는 성 같은 빙산은 비극적으로 보인다. 지질학적 풍경들은 인간의 표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자연에 동물이나 인간이 등장하는 장면은 초인간적 숭고를 넘어 친근해진다. 가령 2004년 에콰도르의 갈라파고스 섬에서 찍은 바다이구아나의 짝 편 앞발은 인간의 손을, 2009년 사우스 샌드위치 제도에서 찍은 펭귄들은 질서 있게 줄 서 있는 인간들을 떠오르게 한다.

인간은 직립하면서 대지로부터 손이 자유로워지고 다른 동물과의 격차를 현격하게 늘려갔지만, 인간이라는 동일자 안에는 여전히 ‘동물’이라는 타자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렇게 해서 우리는 동물에게서 다시 인간의 모습을 본다. 물론 살가두가 찍은 동물들은 인간들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위험은 인간에게도 곧 피드백될 것이다. 그의 작품 속 동물들은 진기함과 이질성을 드러내면서도 감정이입이 가능하다. 2004년 아르헨티나의 발데스 반도에서 찍은 남방참고래는 꼬리를 물 밖으로 내놓은 채 탐욕스러운 인간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치는 듯하다. 2010년 잠비아의 카푸에 국립공원에서 찍은, 숲으로 급히 달아나는 코끼리도 그렇다. 야생의 삶을 살고 있는 원시부족, 정확하게는 ‘문자가 없는 민족(프랑수아 도스)’과 그 생활상을 담은 살가두의 작품들은 시원적 형태의 문화를 알려준다. 그들은 작품 속 동물처럼 자연에 속해 있지만, 동시에 문화의 특징 또한 선명하다. 세계 구석구석을 탐사하는 살가두의 사진에는 인류학적 장면들이 다

- 1 날씨가 아주 나쁠 때는 네네츠 족과 순록은 한곳에 머물러 버린다. 북극권 안 아말 반도, 시베리아, 러시아, 2011.
- 2 알브르그와 틴 메르조우가 사이의 넓은 시구, 타드라르트, 자넷 남쪽, 알제리, 2009.
- 3 브라질의 마투그로수 주의 상구 상류 지역에서 와우라 사람들이 자신들 마을 근처 풀라가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다. 브라질, 2005.

수 포함되어 있다. 그의 사진 속에서 열대지방에서 극지방까지 두루 분포하는 인간들은 도구를 이용하여 자연 속에서 생존한다. 고깃배나 천막같이 첫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구가 있는가 하면, 아랫입술을 길게 늘이거나 턱 아래로 늘어뜨린 구조물같이 부조리해 보이는 장식물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능을 충족시켜주는 나름으로 합리적인 사물들이다.

관객들이 보는 것은 명암과 질감과 구도가 잘 조율된 사진이자, 그 사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자연과 인간, 문화와 역사의 모습이다. 살가두의 사진은 다양한 현상의 나열을 넘어서 표면 뒤의 구조가 있다. 구조주의 인류학자 레비 스트로스가 보여준 <슬픈 열대> 속 예지에 찬 비전은 살가두의 인류학적 사진에도 해당된다. 자연과 함께하는 인류학적 풍경들은 자연의 어떤 이상적인 상태, 숲속에 깊이 숨겨진 하나의 완전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인간의 현재 상태에서 원초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자연적 인간은 사회 밖에 있지 않다. 살가두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족들의 부조리해 보이는 장식은 자연에서 문화로 가는 가느다란 경계선이다.

자연의 재료들을 조직해서 만든 장식들은 모종의 사회 질서를 보여준다. 사진 속 그들은 관객으로 하여금 “사회 상태와의 관련 속에서 자연적 인간을 재발견”하게 한다. 그것은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근친결혼의 금지처럼, “문화의 입구에 위치하는 동시에 문화 속에 속해 있기도 하며, 또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문화 그 자체”다. 슬픈 지구 속 그들은 동물이 아니라 문화인인 것이다. 살가두는 자연적 환경이 제공하는 것을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원시의 문화에 포커스를 맞춘다. 그리고 이 같은 보편적인 원칙은 원주민의 두뇌 속이나 현대인의 두뇌 속에서 마찬가지로 작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역사주의적 편견에 의하면 그들의 삶은 저발전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미개이지만, 인류학적 사고로 보면 단지 다른 종류의 질서 속에 살고 있다. 사진은 이러한 차이를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이며 살가두는 그 도구의 힘을 한껏 발휘하여 지구의 곳곳에 있는 야생과 야생적 사고를 단순히 면서도 힘 있게 펼쳐 보인다. S



# 행복하게 사는 것

스타일리스트 서영희

우리 것을 재해석해 아름다운 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스타일리스트 서영희의 애장품은  
횃대보로 만든 옷 덮개이다. 세심한 손놀림과 색실로 아로새긴 문양 속에서  
그는 옷에 대한 옛사람들의 정성과 마음가짐을 떠올린다.

글 윤연숙 사진 이은숙

예술작품과도 같은 코리안 스타일의 화보를 통해 창조적인 작업을 보여주고 있는 스타일리스트 서영희. 우리나라 전통문화에서 새로운 테마를 발견하고 자신만의 감성을 더해 그 속에 담긴 의미와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해내는 독보적인 인물이다. 지난 시절 꽤 오랫동안 <설화수> 매거진의 화보를 담당하면서 전통문화와 설화수의 철학을 담백하고 그윽하게 드러냈던 그는 요즘 9월 파리 장식미술관에서 개최되는 한국 패션전의 총괄 디렉터를 맡아 준비에 여념이 없다.

“조선시대 왕실의 주요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의궤에서 영감을 받아 전시를 준비하고 있어요. 저 개인의 작업이 아닌 한복에서부터 현대 의상까지 한국 패션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자리여서 부담이 크지만, 한국 패션의 역사와 가치를 제대로 잘 전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옛 문화유산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전통문화에서 아름다움과 편안함을 느끼는 DNA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특히 한복에 대한 애정이 깊은데,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서도 두루마기를 좋아한다. 단순하고 간결한 핏은 코트처럼 현대적으로 해석해 입기에도 좋은 아이템이라고 전한다.

“저희 세대만 해도 어렸을 때 엄마들이 한복을 입고 생활했어요. 제가 입고 자라지는 않았지만 추억 속의 엄마는 항상 한복 차림이었고, 특별한 날에는 더욱 고운 한복을 골라 입으셨죠. 그러니 제 정서에는 한복이 어려운 옷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정감 어린 의상이에요.”

이런 유년 시절을 보낸 서영희는 애장품도 남다르다. 아름다운 십자수가 놓인 횃대보(벽에 걸어둔 옷을 가리는 데 사용한 일종의 큰 보자기)로 만든 옷 덮개를 애장품으로 내놓았다. 지금은 볼 수 없지만 1960년대까지만 해도 거의 집집마다 횃대보가 벽면 한쪽을 장식하고 있었다고 한다.

“1950~60년대에는 현대식 옷장이 널리 보급되지 않아 횃대보 옷 덮개를 많이 사용했어요. 지금처럼 옷이 흔한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 그 시대 사람들이 옷을 대하는 자세와 정성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옷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수까지 정성스레 놓아 싸개를 해서 걸어놨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횃대보 옷 덮개는 옷을 잘 관리해 주기도 하지만 그 모습 자체가 집 안의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장식 오브제가 되기도 했어요. 문양을 보면 봉황, 목단, 원앙 그리고 Sweet Home, 복福 같은 글자 등 가정의 행복과 평안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한 장 한 장 들여다보며 수에 담긴 이야기를 읽어내는 것도 재미있어요.”

옥양목(밭이 고운 무명) 보자기를 사용해 한 폭의 그림 같은 생활 도구를 만들어낸 옛 사람들의 지혜와 미적 감성을 엿볼 수 있는 횃대보 덮개. 아름다운 것을 사랑하고 항상 행복을 가까이 두고자 했던 옛사람들의 바람이 전해진다. 스타일리스트 서영희의 바람도 그들과 다르지 않다. 늘 깨어 있어 편견이 없는 사람이고 싶다. 사람이고 사물이고 왜곡되어 보이지 않아야 마음이 평화로운 행복한 사람이 될 테니까. S



## 집 안으로 들인 공원 한 조각

손에 잡은 컵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고 탁자 위 접시에 그려진 초록 나무가 아침녘의 싱그러움을 전해준다. 집 안 곳곳에 그려진 자연의 향기는 보는 이의 심상에 진정한 힐링 감성을 제공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화분같이 할 때, 곁에 두고 보고 또 봐도 컬러와 패턴이 예쁘다. 스타일이 살아 있기에 장식용 소품으로도 손색없다. '와일드 앤 울프'의 플라워 패턴 모종삽은 리빈.



나비의 화려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을 커버 위에 그대로 담았다. 집 안 어느 곳에서나 주변 오브제들과 조화로이 어울리는 육각형의 백자함은 우일요.



굳이 비싼 그림을 걸어둘 필요 없다. 이렇게 예쁜 수채화 패턴이 그려진 타일 한 장이 집 안 분위기를 화사하게 만든다. '더 걸 온 더 문'의 실크스크린 플라워 패턴 타일은 리빈.

물론 취향의 차이기에 강요할 수 없겠지만 요란하게는 아니더라도 뭔가 작은 변화를 주고 싶다면 매일 사용하는 그릇이나 컵 등을 바꿔보거나 실내 소품들에 살짝 변화를 줘보는 건 어떨까요?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분이라면 더욱 추천해봅니다. 답답한 실내 공간에서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 마음과 정신이 느끼는 감성이 달라지니까요. 꽃, 새, 나비 등 자연에서 모티브를 얻은, 자연과 가까운 디자인이 계절과 함께 다시 각광받고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예술 활동의 원천이 되듯, 콘크리트 색 도시에 살고 있지만 자연을 담은 오브제들과 함께 작은 힐링 감성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로운 햇살이 집 안으로 들어와 어우러진다면 실내 분위기는 더욱 화사해질 테고요. 자연 속에 와 있는 듯한 감성을 불러일으키며 생활 속에 작은 여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S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끌로디아 도움 주신 곳 커먼키친(070-4212-4650), 우일요(02-764-2562), 린빠뉴(070-7529-9342), 리빈(070-7788-1295)



손으로 직접 만든 도자의 소박한 모양과 더불어 파스텔컬러로 칠한 단아함이 어우러져 있다. 장식 소품으로도 훌륭한 2단 도자 도시락함은 우일요.



꽃 피는 봄이 오면 멀리 있는 친구에게 보내는 염서 한 장이 봄날의 감성을 업그레이드시킨다. 'Rifle Paper Co'의 일러스트 염서는 커먼키친



브라운과 카키 컬러의 다소곳한 나뭇잎들이 마치 바람결에 날리듯 잔 돌레를 감싸고 있다. 일러스트로 더욱 정감 가는 빈티지 커피잔과 받침은 커먼키친



초록빛 먹으로 칠한 것 같은 자연스러움이 돋보인다. 창문에 걸어 두거나 식탁 위에 다소곳이 올려놓아도 멋스러운 '더 걸 온 더 문'의 일러스트 티 타월은 리빈.



이른 아침이면 울려 퍼지는 새의 청명한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듯하다. 수채화 톤의 채색감이 편안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새 도자 오브제는 우일요.



트로피컬 무드의 컬러풀한 꽃들과 생동감 넘치는 새가 프린트된 쿠션은 모노톤 일색이던 리빙 공간에 멋진 포인트 소품으로 제격이다. 스코그.



한 폭의 수묵 담채화가 그려져 있기에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힐링 감성이 샘솟는다. 벽에 가는 액자는 물론이요 트레이로도 사용 가능한 세라믹 오브제는 우일요.



시선을 멈추게 하는 솔리드한 컬러감으로 어디서나 프레시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그에 어울리는 화이트 클로버 문양이 그려져 있는 원형 트레이는 커먼키친



세필 붓으로 그린 듯한 섬세함이 돋보인다. 티와 더불어 집 안 곳곳을 향기로 물들이는 알리 밀러의 나비 문양이 들어간 티포트, 커피잔과 받침은 린빠뉴.

## 손으로 만든 멋으로 스며들다

트렌드에 상관없이 오직 작가만의 유니크한 컬러 감각과 디자인으로 완성된 소품들은 마치 한지에 먹이 번지듯, 걸친 이의 감성 속에 스며들며 또 다른 작품으로 탄생한다.

에디터 권자에 사진 이종근



고급스러운 컬러 매치가 돋보인다. 단단하게 조인 매듭이 꽃으로 탄생했으며 브로치에 장식 오브제를 더해 유니크함을 살렸다. 강선형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전통매듭의 일종인 방울매듭과 평매듭을 이용하여 만든 팔찌로 장식성을 살려 수술과 원석을 달아 포인트를 주었고 참 형태로 탈부착이 가능하다. 조은희 작가 작품으로 량랑.



빛살무늬의 흔적을 엿볼 수 있는 우각 위로 형형색색 매듭이 꽃을 피웠다. 모노톤의 상의 위에 포인트 액세서리로도 훌륭한 브로치는 강선형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손맛이 듬뿍 깃든 수공예품에서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기성품에서 찾을 수 없는 여유로움과 시대를 아우르며 변하지 않는 멋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하지 않으며 작가의 창의적 감성으로 만들어낸 패션 소품들은 훌륭한 작품에 견주어도 뒤처짐이 전혀 없지요.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어 유니크한 컬러 포인트로 핸드백을 선택하거나 하나밖에 없는 유니크함으로 시선을 끄는 귀고리 등 액세서리로 쉽게 패셔너블한 멋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량을 제작하더라도 가치가 특별한 제품들은 성별과 나이의 차별 없이 글로벌하게 사랑받고 있음은 물론, 누군가를 위한 선물로도 훌륭한 아이템이 될 것입니다. 섬세한 손작업으로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장신구, 한 땀 한 땀 공들여 수놓은 자수는 보는 것만으로도 편안하고 따뜻한 감성을 자아냅니다. S

스타일리스트 뷰로 드 플로리아 도움 주신 곳 KCDF갤러리숍(02-733-9041), 량랑(02-3277-3152), 헤브빈서움(070-4415-1508), 이대박물관 아트숍(02-3277-3152), 아원공방(02-735-3482)



실크 소재로 만든 버선 슬리퍼는 한 땀 한 땀 바느질하여 만든 한복의 정성스러운 느낌을 그대로 담았다. 부드러운 촉감의 슬리퍼는 조현하 작가 작품으로 헤브빈서움.



전통 손누빔 방식을 이용하여 만든 장지갑으로 한 땀 한 땀 손으로 직접 꼼꼼하게 만들었기에 견고함을 자랑한다. 통영 누비 정숙희 작가의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봄을 맞이하는 꽃처럼, 매화매듭과 도래매듭을 번갈아 만든 팔찌. 매듭으로 만든 꽃송이들이 손목 위에서 마치 향기를 내는 듯하다. 박진오 작가 작품으로 KCDF갤러리숍.



손뜨개와 전통매듭을 결합하여 만든 클러치. 소재가 가진 색, 굵기, 성질 등을 이용한 Knitster Bag 시리즈로 물건을 담으면 늘어나지만 비우면 원래 형태로 되돌아간다. 임유나 작가 작품.



단단하게 조이고 묶어 전통매듭 기법으로 만든 컬러풀한 장식의 황동 소재 브로치에는 작가의 감성이 넘쳐흐른다. 강미나 작가 작품으로 이대박물관 아트숍.



꽃 자개와 옥, 옉닉스, 공작석, 산호 등 화려한 원석과 직접 금형 제작한 금속편이 전통미를 더한다. 딸잠의 모티브인 용수철(털새)을 모티브로 만든 머리핀은 량랑.



연꽃의 봉오리 모양을 닮은 연봉매듭 오브제는 연꽃의 볼륨감을 그대로 살리되 다양한 색상으로 염색하여 제작했다. 강미나 작가 작품으로 이대박물관 아트숍.



비단을 짚시 모양으로 접은 후 하나 하나 바느질로 이어 붙여 만든 동전지갑. 모든 과정을 직접 손바느질로 제작한 작가의 정성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량랑.



손으로 직접 깎고 다듬어 만든 빗은 투박한 듯하지만 섬세한 작업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나무의 결과 향이 그대로 살아 숨쉬는 나무 빗은 아원공방.



## 캔버스 위에 흐르는 아름다운 선율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모든 예술은 음악을 동경한다”고 했다. 많은 화가들이 자신의 그림에 악기를 비롯해 음악과 관련된 모티브를 등장시킨 것으로 보아 애정의 대상이었음이 분명하다. 영화 속에 등장한 악기를 들여다본다.

에디터 윤연숙

예술에서 음악과 미술은 오랜 세월 서로를 동경해왔다. 예전부터 화가들 가운데 음악 애호가 수가 수두룩했고, 음악에서 작품의 영감을 떠올리거나 캔버스 위에 음악과 관련된 모티브를 등장시킨 화가도 많았다. 프랑스 인상주의 화풍 속에는 음악을 소재로 한 장면이 꽤 많이 존재한다. 폴 세잔(Paul Cezanne)의 <피아노를 치는 소녀>, 앙리 마티스(Henri Matisse)의 <창가의 바이올리니스트> <피아노 교습> <음악>, 오귀스트 르누아르(Pierre-Auguste Renoir)의 <피아노 치는 소녀들> 등 그림 속에는 악기와 악기를 연주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당시의 이런 분위기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 있었다고 한다.

특히 르누아르는 본래부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음악가들과의 친분도 매우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Richard Wagner)를 열렬히 옹호해 약 10여 년간 그를 따라다녔을 만큼 열정적이었다. <피아노 치는 소녀들>은 1892년 프랑스 정부로부터 획상부르 미술관에 전시할 그림을 그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완성한 작품이다. 다정하게 피아노를 연주하는 자매 이본느와 크리스틴의 모습을 주제로 파스텔화 한 점과 다섯 점의 유화 등 총 여섯 개의 작품을 완성했다. 이본느와 크리스틴은 실존 인물인데 이본느는 프랑스 작곡가 에르네스트 쇼송(Ernest Chausson)의 누이로 당대의 유명한 피아니스트였다. 르누아르 특유의 섬세한 붓놀림과 화사하고 부드러운 색채는 자매의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마치 리드미컬한 피아노 선

율이 흐르는 분위기를 연출한다. 당시 르누아르는 자신의 행복한 경험을 그림 속에 녹여냈으며, 화목하고 인락한 가정, 감미로운 음악 등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의 그림이 온화하고 아름다운 색채를 띠는 것은 낙천적이고 행복한 그의 감정이 묻어나 있기 때문이며, 그림 속에서 피아노는 그런 감정을 더욱 고조시킨다. 피아노만큼이나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한 악기는 바이올린이다. 현악기는 유토피아를 추구하는 그림들 속에 꾸준히 등장해왔으며, 특히 정물화에서 바이올린은 빵과 과일, 꽃과 함께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오브제 역할을 담당했다. 또 바이올린은 지적이고 미학적 완성도가 높은 악기로 알려져 있다. 화가들은 자신의 그림 속에 바이올린을 등장시켜 작품의 미학적 완성도를 높여려 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림 속 바이올린은 소리를 내지 않지만 커다란 울림의 공간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마티스와 라울 뒤페(Raoul Dufy), 샤갈(Marc Chagall)의 작품에 등장하는 바이올린들은 경쾌한 곡이 연주되는 듯, 때로는 지난날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잔잔한 곡을 담은 것같이 느껴진다. 특히 마티스의 작품에서는 바이올린이 자주 등장하는데,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젊은 여성>은 휴양지의 열린 창밖 풍경을 배경으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여성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티스의 작품 세계에서 음악은 중요한 주제였다. 실제로 마티스는 바이올린 연주를 즐겼고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고 한다.

악기와 함께 음악가를 그린 그림도 있다.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가 1899년에 그린 <피아노 앞의 슈베르트>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슈베르트가 한 남자와 세 여인 앞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그림은 성공한 실업가 니콜라우스 뎀바가 자신의 새로운 저택 음악실에 장식할 그림으로 클림트에게 주문한 것이다. 클림트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역사적인 고증이 단지 고려 사항일 뿐이어서 대부분의 화가들은 상상을 토대로 작업을 했다. 이 작품 역시 클림트가 상상한 슈베르트의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명암이 강렬하게 대비되는 촛불은 불꽃같이 살다 간 슈베르트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작품은 1945년 독일 남부 임멘도르프 성에서 일어난 화재로 소실되어 현재는 이미지만 남아 있다.

화가들은 자신의 작품에 악기를 들여와 삶에서 흘러나오는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활용했다. 화가의 회화적 연출 속에서 악기와 음악은 당시 삶의 모습들을 엿보게 한다. 그것이 행복의 멜로디일 수도, 슬픔의 멜로디일 수도 있다. S

1 <Girls at the Piano>, Pierre-Auguste Renoir, 116x90cm, oil on canvas, 1892, Musée d'Orsay

2 <Young Woman Playing Violin>, Henri Matisse, oil on canvas, 1923



### 2015 디토 페스티벌-슈베르티아데(Schubertiade)

한국 클래식계의 아이돌 '양상블 디토'를 중심으로 한 젊은 클래식 연주자들의 무대 '디토 페스티벌'이 일곱 번째 축제를 연다. 6월 6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과 LG아트센터에서 관객과 만난다. 2015 디토 페스티벌의 테마는 슈베르티아데. 슈베르티아데는 '슈베르트의 밤'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리아 작곡가 슈베르트와 그의 음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함께한 작은 음악회의 이름이다. 리처드 용재 오닐과 양상블 디토, 피아니스트 임동혁 등 참가 아티스트 전체가 슈베르트의 21세기 친구가 되어 아름다운 음악을 알린다. 청명하고 따사로운 초여름, 간결하면서도 깊은 멜로디를 선사한 것이다. **디토 스페셜** 6월 6일 리처드 용재 오닐 <겨울나그네>/ 6월 17일 임동혁 with 스티븐 린 <슈베르트 판타지> | **디토 프렌즈** 6월 13일 바이올리니스트 신지아 <세레나데>/ 6월 19일 정재일, 지용, 성민제 <Untitled> | **양상블 디토** 6월 20일 Different Ditto <추락천사>/ 양상블 디토 시즌9 <슈베르티올로지>

문의 크레디아 인터내셔널 577-5266, www.ditofest.com



# 오랜 집념이 낳은 미의 근간 인삼과 자음단™

## Ginseng and JAUM Balancing Complex™

조화와 균형을 찾아 진정한 아름다움으로 안내하는 설화수의 근간에는 인삼과 자음단™이 자리하고 있다. 아시아의 지혜가 담긴 한방성분과 첨단 피부과학의 만남은 이전에는 없던 美의 세계로 인도한다.

에디터 윤연숙

설화수는 오래전부터 이어 내려온 한방성분과 조화와 균형을 중시하는 아시아의 지혜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힘을 빌려 피부의 균형을 가장 완벽하게 바로잡아 줄 설화수만의 고유한 처방을 완성했다. 3,000여 가지의 한방성분과 수만 번의 실험을 통해 5개의 원료를 엄선했고, 18시간이라는 설화수 비밀의 시간을 거쳐 마침내 자음단™을 탄생시켰다. 노화로 인해 무너진 피부의 다섯가지 균형을 잡아 윤택하고 빛나는 피부로 바꿔주는 자음단™은 조화와 균형의 브랜드 철학을 고스란히 담은 설화수의 대표 원료이다. 예로부터 효능이 뛰어난 한국의 인삼을 맨 처음 미의 원료로 주목했던 설화수는 1966년부터 50년 가까이 인삼에 대한 총체적 연구, 진세노믹스™(Ginsenomics™)를 통해 세계 최초로 인삼에 숨겨진 귀한 성분을 피부 속으로 전달하는 기술에 성공했다. 또한 인삼을 뿌리부터 줄기, 잎, 열매까지 모든 부위별로 연구하고, 인삼 재배와 가공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삼의 효능을 피부에 최적으로 전하는 특별한 노하우를 축적해오고 있다. 인삼을 노화를 다스리고 피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원료로 탄생시킨 설화수의 기술은, 아시아의 지혜에 대한 설화수의 흔들림 없는 열정과 신념의 상징이다. 또한 설화수의 고귀한 원료인 인삼과 자음단™, 진정한 아름다움을 담은 홀리스틱 뷰티의 정수精髓이다. S

Sulwhasoo traces its beginnings from the traditional herbal ingredients and the Asian wisdom of valuing “Harmony and Balance.” The brand carried out tens of thousands of tests to select five ingredients from about 3,000 Asian medicinal herbs, and finally created JAUM Balancing Complex™ after the secret time of 18 hours. JAUM Balancing Complex™, formulated to restore the skin balance lost by aging for radiantly refined skin, is Sulwhasoo’s signature formula that reflects the philosophy of “Harmony and Balance.” Sulwhasoo first recognized the exceptional efficacies of Korean ginseng at the major source of beauty. It conducted a comprehensive study of ginseng for nearly 50 years, from 1966, becoming the first brand in the world to successfully develop the technology of delivering the precious substances hidden in ginseng to the skin through Ginsenomics™. The brand studied all the parts of ginseng, from the roots to the stems, leaves, and berries, and accumulated the special know-how of optimizing the efficacies of ginseng by studying the technology of growing and processing ginseng.



# 潤한 피부를 위한 반가운 소식들

## 4세대 윤조에센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윤의 절정’을 이룬다

‘피부의 기운을 다스려 피부 본연의 아름다움의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믿음에서 탄생한 윤조에센스가 더욱 진화한 4세대 윤조에센스를 새롭게 선보였다. 최초의 한방 부스팅 에센스로 제품이 출시된 이래 18년 동안 줄곧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으며, 설화수의 역사와 함께 진화를 거듭해온 설화수의 시그니처 제품이다. 2015 윤조에센스는 고유 원료 자음단™에 함유된 유효 성분의 종류와 함량을 증가시키는 신규 기술 PREXtract Process™(프렉스트랙트 프로세스™)를 적용, 기존 자음단™의 효능을 더욱 높여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효능을 담아냈다. 이로써 더 강력한 부스팅 효과를 주고, 피부 밸런스를 최적으로 유지해 그동안 경험할 수 없던 압도적인 ‘윤의 절정’을 선사한다. 설화수의 18년 뷰티 헤리티지가 담긴 4세대 윤조에센스는 5월부터 설화수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60ml, 9만원대/ 90ml, 12만원대



## 글로벌 뷰티 브랜드 설화수의 위상

설화수는 지난 4월 1일, 글로벌 베스트&스테디셀러인 윤조에센스 4세대 제품 미디어 론칭 행사를 개최했다. 설화수의 집념이 만들어낸 18년 뷰티 헤리티지의 절정인 4세대 윤조에센스의 출시를 기념하는 자리로, 국내 뷰티 에디터 130여 명을 비롯해 홍콩·태국·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여러 국가에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그간 진출한 나라들의 미디어가 대거 참석함으로써 설화수는 글로벌 뷰티 브랜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이번 행사는 ‘최초의 한방 부스팅 에센스’인 윤조에센스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여성들의 뷰티 루틴을 획기적으로 바꾸어놓았음은 물론, 진화를 거듭해온 세대별 히스토리와 세계 속에서 누린 인기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또한 이번 4세대 신제품의 핵심 콘셉트 ‘윤의 절정’의 모티브가 된 영상이 행사장의 벽면 네 곳을 가득 채워,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또한 특별 제작한 윤조에센스 아트 영상은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이날 참석한 국내의 미디어들은 한층 진화한 4세대 윤조에센스에 깊은 찬사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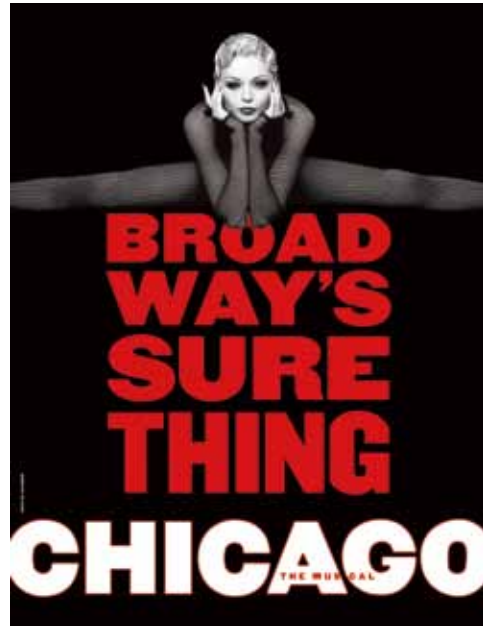
## 기품 있고 윤기 나는 피부가 화사하게 피어나다

‘화중왕’이라 불리는 5월의 꽃, 모란이 퍼펙팅쿠션 위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냈다. 밀리언셀러 퍼펙팅쿠션의 론칭 2주년을 맞이해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전통 채색화가 강은명 작가와 컬래버레이션으로 한국 민화 속 모란을 고급스럽고 현대적인 시각으로 담아내어 전 세계 고객에게 모란의 풍요로움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퍼펙팅쿠션 리미티드 에디션은 활짝 피어나는 모란처럼 기품과 윤기 있는 피부를 선사한다. 살구씨에서 찾은 행인한방보습 성분이 탄력 있고 건강한 피부를 표현해주며, 색소를 오일 대신 물에 분산시키는 수채화 공법으로 결점은 물론 미세한 주름까지 완벽하게 감춰준다. 또한 설화수만의 차별화된 밀착제가 유연한 필름 막을 형성해 건조함과 무너짐 없이 12시간 동안 메이크업을 유지한다.

본품 15g×2개, 6만원대/ 디럭스 15g×3개, 7만6000원대(한정판매)







### 뮤지컬 <시카고>

세계적인 뮤지컬 <시카고>의 한국 공연은 2000년 초연을 시작으로 지난 2014년까지 열 번째 시즌을 이어왔다. 2015년 열한 번째 시즌을 맞은 뮤지컬 <시카고>는 12년 만에 오리지널 팀 내한공연으로 새로운 시작점에 섰다.

19년 동안 미국 브로드웨이를 점령하며 세계 정상의 기량을 지닌 뮤지컬 <시카고> 오리지널 팀이 12년 만에 한국을 찾는다. 지난 2003년 첫 내한공연 당시 팔등신 배우들이 선보인 섹시하고 뜨거운 무대는 관객들을 열광시키며 객석 점유율 85%라는 기록을 남긴 바 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독일, 스웨덴, 일본, 포르투갈, 러시아 등 33개국 423개 도시에서 2억 2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동원한 뮤지컬 <시카고>의 오리지널 내한공연이 기대되는 이유는 이 작품이 미국 뮤지컬의 자존심이어서다. 미국에서 탄생한 <시카고>는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오페라의 유령>에 이어 두 번째로 통련하는 작품이다. <시카고>만의 화려함과 관능미 넘치는 안무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오리지널 배우들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섹시함을 장착하고, 재즈의 본고장에서 온 14인 조 오케스트라 빅밴드의 라이브 연주에 맞춰 정통 <시카고>를 선사할 예정이다. 1920년 보더빌 무대를 그대로 살려 스타일리시한 감각을 보여줄 이번 내한공연은 화려한 여름날을 선사해줄 것이다.

일시 2015년 6~8월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 문의 02-577-1987



### 재즈 바람이 분다, 서울 재즈 페스티벌

포근한 바람과 따사로운 햇살이 아름다운 5월, 재즈 애호가들을 위한 페스티벌이 열린다. 올해로 9회를 맞이하는 서울 재즈 페스티벌에는 세계 최고의 재즈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흥겨운 재즈 리듬 속으로 안내한다.

재즈 음악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할 '서울 재즈 페스티벌'이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개최된다. 푸른 잔디밭에서 듣는 재즈는 청량한 감동을 전해줄 것이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재즈 피아노의 거장 허비 헨콕과 칩 코리아의 협연 무대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보사노바의 마에스트로 세르지 우 멘시스, 재즈 보컬의 대표주자 그레고리 포터, 1세대 일렉트로닉 선구자 베이스먼트 잭스 등의 출연이 이목을 끈다. 세계적인 기타리스트 존 스코필드는 밴드 우버잼과 재결합하여 프로젝트 '존 스코필드 우버잼' 유닛으로 서울 재즈 페스티벌 무대를 찾는다. 재즈, 펑크, 일렉트로닉이 절묘하게 조합된 음악으로 관객의 귀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반도네온 연주자 료타 고마츠는 '료타 고마츠 앤 프렌즈 피쳐링 이직'이란 타이틀로 일본 탱고 연주자들을 비롯해 고상지 등 국내 연주자, 가수 이적 등과 함께 무대에 오른다. 국내 뮤지션으로는 에픽하이, 페퍼톤스, 재주소년, 윤환, 제이레빗, 김사월×김해원 등을 만날 수 있다.

일시 5월 23~25일 장소 올림픽공원 문의 02-563-0595

### 뮤지컬 <영웅>



안중근 의사의 의거를 다룬 창작 뮤지컬 <영웅>이 중국 공연을 마치고 다시 국내 무대에 올려진다. 국내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공연을 이어온 뮤지컬 <영웅>은 언론과 관객의 열렬한 찬사를 받으며 대한민국 대표 창작 뮤지컬로 자리 잡고 있다. 일시 ~5월 31일 장소 블루스퀘어 삼성전자를 문의 02-2250-5926

### 공연 <그림 머피의 지젤>



세계 초연자인 유니버설 발레단의 <그림 머피의 지젤>은 호주 안무가 그림 머피가 지휘봉을 잡은 작품으로 클래식 명작 발레를 과감하게 각색해 새로운 무대를 보여준다. 특히 고전 발레와는 180도 다른 컨템퍼러리 발레의 매력을 느낄 수 있을 듯하다. 일시 6월 15~18일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 문의 070-7124-1737

### 뮤지컬 <유린타운>



2002년 토니아워드 연출상 극본상, 작곡상 등 주요 3개 부문을 수상하고, 2003년 한국뮤지컬대상 베스트 외국뮤지컬상을 수상한 뮤지컬 <유린타운>이 10년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켜고, 최강의 캐스팅으로 업그레이드되어 돌아왔다. 일시 5월 17일~8월 2일 장소 흥익대 대학로 아트센터 문의 02-577-1987

### 책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



<담론-신영복의 마지막 강의>는 <강의> 이후 10년 만에 출간되는 신영복 교수의 강의록이다. 이 책은 동양 고전 말고도 평소에 이야기하던 존재론에서 관계론으로 나아가는 탈근대 담론과 세계 인식, 인간 성찰을 다루고 있다. 팍팍한 삶 속에서 한 줄기 위로와 격려의 공간이 되어줄 것이다. 지은이 신영복 출판사 돌베개

### 전시 <마크 로스코>



추상표현주의를 대표하는 작가 마크 로스코의 시대별 대표작 50점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로스코의 전 작품을 총 다섯 개의 섹션(신화의 시대, 색감의 시대, 황금기, 벽화의 시대, 부활의 시대)으로 재구성해 관람객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을 선사한다. 일시 ~6월 28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문의 02-532-4407

### 전시 <헤세와 그림들>



헤르만 헤세가 남긴 수많은 그림들을 재해석해 따뜻함과 휴식을 통한 감성 회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전시는 문학가이자 예술가였던 헤르만 헤세의 대표작을 비롯해 사진, 유품 등을 전시한다. 배우 김수호가 전시 프로듀서를 맡았다. 일시 5월 23일~11월 1일 장소 전쟁기념관 기획전시실 문의 1661-0653

## 설화수를 사랑하는 독자를 위한 특별한 선물



###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풍부한 촉촉함과 윤기를 더해 피부를 유연하게 보필해주어 세안 후 처음에 사용하는 부스팅 에센스입니다. 자음단™이 피부의 다섯 가지 균형을 바로잡아 속부터 촉촉한 윤기를 만들어줍니다. 문의 080-023-5454



###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10만원권(5명)

1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특급 호텔,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용권을 다섯 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객실 또는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은 당첨자께 개별적으로 보내드립니다.

(주)아모레퍼시픽 설화수 VIP 고객을 위한 고품격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여성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언제나 독자와 가까운 자리에 서 있고 독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편집부 앞으로 독자 엽서를 적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내용은 알찬 기사 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칭찬보다 신선한 아이디어 제안과 따끔한 질책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독자 엽서를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응모 방법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내의 독자 엽서로 우편을 이용해 응모
- 응모 마감 2015년 6월 15일까지
- 증정 선물 설화수 윤조에센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 당첨자 발표 7/8월호 독자 선물 당첨지란 참조

### 2015년 3/4월호 독자 선물 당첨자 명단

#### 설화수 윤조에센스(5명)

- 허정애 대구 북구 신격동
- 김영숙 경기 안성시 신소현동
- 하윤경 경기 용인시 동백동
- 이순희 대구 남구 대덕로
- 이경숙 대전 유성구 장대동

#### 뮤지컬 <팬텀> 관람권(4명)

- 이혜경 서울 중구 신당동
- 신정은 서울 강남구 선릉로
- 이은경 서울 강사구 공향동
- 박채정 서울 강남구 선릉로

2015년 3/4월호 당첨자 선물은 5월 31일까지 보내드립니다.



## 피부 균형을 맞춰주는 자음단™의 힘으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윤의 절정을 이룬다

### 설화수 윤조에센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에 생기가 없어 보인다면 피부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흐트러진 피부 균형을 바로잡아 피부 본연의 윤기를 끌어올려주는 설화수 윤조에센스. 삼천 가지 귀한 원료에서 고른 다섯 가지 성분으로 완성한 자음단™이 피부에 부족한 기운을 채워 피부 균형이 잡힌 건강한 피부로 가꿔줍니다. 차원이 다른 스킨케어의 시작으로 속부터 우러나는 촉촉한 윤기의 절정을 경험하세요.



Special Gift 엽서를 보내주시는 애독자 중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Gift를 드립니다

통합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 □ □ □ □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 부담  
발송 유효 기간  
2010. 9.1~2017. 9.1  
서울 마포우체국  
승인 제210호

받는 사람

서울시 마포우체국 사서함 117호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 담당자 앞

전화: 02-709-5401 팩스: 02-709-6339

1 2 1 6 0 0

# Sulwhasoo



아모레퍼시픽 설화수의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는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합니다.  
보내주신 고객님의 의견은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를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고객님의께는 추첨을 통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1. 펼치다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폼격 있는 삶(8p)	7	6	5	4	3	2	1
피부 섬기기(12p)	7	6	5	4	3	2	1
동서고금이 만나다(16p)	7	6	5	4	3	2	1
新 공간을 보다(22p)	7	6	5	4	3	2	1
건너다(28p)	7	6	5	4	3	2	1

2. 누리다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설화인(36p)	7	6	5	4	3	2	1
어우러지다(42p)	7	6	5	4	3	2	1
설화풍경(48p)	7	6	5	4	3	2	1
설화보감(52p)	7	6	5	4	3	2	1
설화수를 말하다(58p)	7	6	5	4	3	2	1
디자인 기행(64p)	7	6	5	4	3	2	1

3. 익히다

	매우 만족 .....> 매우 불만족						
	7	6	5	4	3	2	1
배움의 기쁨(72p)	7	6	5	4	3	2	1
한국의 멋(78p)	7	6	5	4	3	2	1
읽다(82p)	7	6	5	4	3	2	1
설화에장(86p)	7	6	5	4	3	2	1
집 안 단장(88p)	7	6	5	4	3	2	1
몸 단장(90p)	7	6	5	4	3	2	1
마음 단장(92p)	7	6	5	4	3	2	1
설화 헤리티지(94p)	7	6	5	4	3	2	1

+ 독자 여러분의 참여를 받습니다.

1. 다음 호 Sulwhasoo에 더 적극적으로 실렸으면 하는 기사는? (해당 칸에 모두 체크해주세요)

- 전통 미용법                       전통 의상 및 액세서리 등 패션 꾸밈                       전통 생활문화  
 한국의 미를 간직한 풍경                       전통문화와 관련된 인물  
 기타 \_\_\_\_\_

2. 다음 중 받고 싶은 선물 1개를 선택해 주세요. (98p 참조)

- 설화수 윤조에센스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 이용권  
 이름 \_\_\_\_\_                      성별    남  여                       나이 \_\_\_\_\_  
 주소 \_\_\_\_\_                      전화번호 \_\_\_\_\_

(선물에 당첨되면 해당란에 적어주시는 주소 및 전화번호로 개별 연락 드립니다)

+ 고은여성문화지 Sulwhasoo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웠던 부분과 불만스러웠던 부분을 자유롭게 적어주세요)

